

베트남 黎朝의 성립과 儒敎理念의 확립:

불교이념으로부터 유교이념으로

유인선*

- I. 머리말
- II. 李朝時代의 유교
- III. 陳朝시대의 유교
- IV. 胡朝와 明 지배기의 유교
- V. 黎朝 초기의 유교
- VI. 맺음말

본 논문은 어떻게 하여 黎朝에 이르러 불교가 지배적이던 베트남사회가 유교이념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베트남에서 유교이념이 지배적으로 되는 것은 黎朝 때부터였다. 그 이전, 보다 정확히 말해서 陳朝가 멸망하는 1400년까지는 불교가 정치를 지배했다.

陳朝의 불교지배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250년대부터 1280년대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이었다. 몽골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하든가 또는 침입 이후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맡은 것은 문신관료였다. 이를 계기로 이들은 조정 내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古典으로서의 유학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유학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켜준 것은 1380년대 권력을 장악한 胡季犛였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송대 신유학이 아니라 원시유학이었다. 胡季犛는 처음 자신의 이미지를 周公으로 부각시키고, 나중에는 陳 왕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원시유학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가 비록 원시유학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베트남 사회가 불교로부터 유가사상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1407년 명이 베트남을 침공하여 이를 직접지배하에 두고 취한 동화정책은 베트남 儒學史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명이 베트남을 교화시키기 위해 많은 학교를 중앙과 지방에 세우고 신유학의 보급에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이 지배한 기간이 20년이나 되었지만 베트남인의 끊임 없는 저항으로 평화시키는 4~5년밖에 되지 못해 동화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428년 黎利가 東都에서 제위에 올라 국호를 大越이라 한 것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만이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까지의 불교이념이 지배하던 왕조들로부터 유교이념의 왕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黎太祖는 학교를 세우고 유학을 가르치게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착실히 실현할 수 없었다.

太祖가 서거하자 태종과 인종이 어린 나이로 제위에 올랐다. 두 황제의 치세는 정치적으로 조정의 신하들이 반명투쟁에 공을 세운 淸化集團의 원로 무인들과 퉁킹 델타 출신으로 이들보다 나이가 젊은 문인들 사이의 대립으로 특징지워 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학이 지배이념으로 존속은 되었어도 일관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黎朝에서 유교이념이 확립되는 것은 聖宗에 이르러서였다. 聖宗이 유교이념의 확립에 집착한 것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몰두하여 유교경전을 열심히 읽은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제위에 오르기 전 조정에서의 권력다툼을 보고만 있었던 두 황제의 무력함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유교의 충효사상을 강조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 어려서 배운 자신의 이념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13세기 중반 몽골의 침입으로 싹트기 시작한 유학의 이념은 胡季犛와 明 支配期를 거치면서 2세기 후인 1460년대 黎聖宗에 이르러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주제어 : 佛教, 蒙古의 侵入, 胡季犛, 明 支配期, 新儒學, 黎聖宗

1. 머리말

베트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중국문화,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몇 년 전 서울에서 동아시아 유교문화를 논하는 학술회의에 베트남 학자가 참가되어야 한다며 한 분이 초빙되었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유교 이념에 대해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은 것은 물론 학계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행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

필자는 10여 년 전 黎朝社會(1428~1788)에서 유교가 지배이념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지배계층의 이념으로만 남고 일반 사회 내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유인선 1993, 477-498). 여기에 대하여 최근 한 일본인 학자는 유교이념이 黎朝의 제4대 聖宗 시기(1460~1497)의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구가 하는데 힘입어 확고히 자리 매김을 하고 이후 鄭氏와 阮氏의 남북 대립기에도 과거제도가 중단 없이 실시됨으로서 그 영향은 사회에 적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佐世俊久 1999, 1-20).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 하여 黎朝社會에서의 유교 영향을 재론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여 이전까지 불교가 지배적이던 베트남 사회에서 黎朝의 성립과 더불어 유교이념이 정치적 이념으로 확립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李朝·陳朝·胡朝 및 明支配期和 黎朝 초 등 각 시대 유교에 대하여는 일본이나 구미학계에서 간략한 연구가 있지만 李朝로부터 黎朝 초까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글은 아직 없다. 본 논문은 이점에 주목하여 李朝 사회의 불교적 이념으로부터 어떻게 黎朝에 이르러 유교적 이념으로 전환했는가 하는 과정을 추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유학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後漢 말 三國時代 초기에 交州太守였던 士燮 때부터라고 한다. 그는 젊어서 洛陽

에 유학하여 『左氏春秋』를 배웠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交州에 중원의 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전해진다(『三國志』 1982, 권 49, 1191; 『全書』¹⁾ 1984-1986, 130-133; 『越史略』²⁾ 1987, 30; Taylor 1983, 70과 74). 그러나 士燮 자신은 유교문화를 베트남에 이식하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가 출입할 때 胡僧, 즉 인도승 및 중앙아시아 승려 수십 명이 향을 피우며 그의 수레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三國志』 1982, 1192; 『全書』 1984-1986, 132; Taylor 1983, 74).

중국지배하의 베트남에서 유학이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것은 唐代에 이르러서였다. 8세기 말 愛州 출신의 姜公輔·姜公復 형제는 당 조정의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고위직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의 문장은 『全唐文』과 『全唐詩』에 실려 있다(『新唐書』 1975, 4831-4832; 『全唐文』 1979, 권 446, 19b-24b; 『全書』 1984-1986, 160; Taylor 1983, 217-218).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예외적인 존재로 唐朝 전 시기를 통해서도 과거로 출사한 자는 10명을 넘지 못했으며 그 중 고위직에 오른 자는 8명도 채 안 되었다(Le Tac[黎則] 2001, 507; Taylor 1983, 218).

사실 중국지배 전 시기를 통해 베트남 사회에 유교보다는 불교의 영향이 더 컸었다. 士燮 시기의 불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거니와, 6세기 중반 南朝의 梁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李賁은 불교를 존중했으며, 그 후계자였던 李佛子是 이름에서 보듯이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禪宗의 일파인 比尼多流支派가 交州에 처음 들어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남인도의 브라흐만 출신인 比尼多流支는 중국의 長安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다 580년 交州에 와서 龍編에 있는 法雲寺에 들어가 불경을 漢譯하면서 선을 가르쳤다고 한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1) 陳荊和 編校, 『校合本 大越史記全書』(이하 『全書』로 약함).

2) 陳荊和, 『校合本 大越史略』(이하 『越史略』으로 약함).

175-180; Tran Van Giap 1932, 235-236; Taylor 1983, 155-158).

唐代에 들어와 불교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져 長安에 가 고승으로 추앙받는 베트남인도 나타났다. 그 예를 우리는 大乘燈에서 볼 수 있다. 大乘燈은 愛州 출신으로 젊어서 드바라바티(지금의 타일랜드 남부)에 가 출가한 후 당의 사신을 따라 입당하여 玄奘에게서 계율을 전수 받았다. 훗날 그는 불교 유적들을 순례하기 위해 인도로 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義淨과 더불어 각지를 편력하다가 입적하였다(Tran Van Giap 1932, 226-227). 그런가 하면 이미 수세기 전부터 발달해 온 베트남의 불교는 당대에 이르러 베트남에 찾아와 영주하든가 인도나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길에 잠시 체류하는 중국인 승려들에 힘입어 더욱 융성해졌다. 베트남을 거쳐간 저명한 중국인 승려로는 明遠・智弘律師・曇潤 등을 들 수 있다.

당대 베트남 불교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無言通派 선종의 전파였다. 無言通은 廣州 태생으로 浙江省의 雙林寺에서 출가한 다음 江西 지방으로 옮겨 南宗禪 계통의 百丈懷海에게서 수년 간 선을 닦았다. 그는 百丈이 입적하자 순례 길에 올라 820년 베트남에 왔으며, 이후 826년 입적할 때까지 北寧省의 建初寺에서 스승의 선을 제자 感誠에게 전수했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5-29; Tran Van Giap 1932, 243-24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지배하의 베트남에서 유학보다는 불교가 발달하였다. 유학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통치를 위해 관료군의 양성이 필요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하겠다.

II. 李朝時代의 유교

938년 白藤江에서 南漢의 군대를 물리친 吳權(939-944)은 이듬해 왕을 칭하고 천년 동안의 중국지배로부터 벗어났다. 그는 곧 百官을 두고 조정의 의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吳權의 제도는 중국적인 것을 모방했다고 하지만, 그가 유학이나 불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아마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불교의 영향이 컸으리라고 생각된다.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吳朝의 뒤를 이은 丁朝(966~980)에 이르면 분명해진다. 吳朝가 단명으로 끝난 다음 十二使君의 혼란기를 수습한 丁部領(966~980)은 황제의 위에 오른 후 나라이름을 大瞿越로 하고 文武僧道の 품계를 정했다고 하는데, 僧統에 吳眞流를, 그리고 僧錄에 張麻尼를 임명하였다. 관직이 몇 자리밖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당시에 고위 僧職이 두 자리나 기록된 것을 보면 불교가 얼마나 존중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丁部領이 吳眞流를 匡越大師에 임명한 것은 승단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했음에 틀림없다(『全書』 1984~1986, 181;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41; 『越史略』 1987, 43; Taylor 1983, 282-283). 匡越大師는 無言通派의 제4세대 선사의 한 사람이었다.

前黎朝의 黎桓(980-1005)은 관리선발을 위해 비록 학교를 세우기는 하였지만(黎嵩 1984-1986, 87), 불교의 영향력은 전과 다름없이 절대적이었다. 그는 匡越大師에 대해 더욱더 예와 공경을 다하면서 군사와 국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41-42; 『全書』 1984~1986, 191). 뿐만 아니라 黎桓은 송나라 사신이 왔을 때 불승 法順으로 하여금 그를 접대케 하였는데, 이로 보건댄 당시 불승은 조정 내에서 최고의 지식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全書』 1984~1986, 191-192;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42-43; 川本 邦

衛 1976, 265).

이러한 불승들을 黎龍鋌, 즉 臥朝(1005-1009)가 戲畵한 것이 前黎朝 멸망의 한 원인이었다. 그는 승려의 머리 위에 사탕수수를 올려놓고 껍질을 벗기다 일부러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게 하고는 그 광경을 보며 재미있어 했다고 한다(『全書』 1984-1986, 201; 『越史略』 1987, 47).

李朝(1009~1225)에 들어와 불교는 역대 군주의 비호를 받으며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사실 李朝의 창건자인 太祖 李公蘊(1009-1028)이 前黎朝의 관리가 되는 것부터 前黎朝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기까지 절대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比尼多流支派 제12대조 선사의 한사람인 萬行이었다. 臥朝가 사망하기 전 李公蘊의 고향인 古法州에 있던 落雷맞은 나무에서 글자처럼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萬行은, 이것이 신하 가운데서 새로운 황제가 출현하여 黎씨는 멸망하고 李씨 姓의 왕조가 성립할 뜻이라고 해석하였다(『全書』 1984~1986, 202; 『越史略』 1987, 49).³⁾ 이 讖言은 아마도 臥朝의 잔혹한 행위에 격분한 萬行과 그를 추종하는 불교세력이 前黎 왕조를 붕괴시키기 위한 염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萬行이 李公蘊을 후원한 것은 그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李公蘊은 절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승려의 양자가 되어 어린 시절을 불교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萬行은 李朝의 성립 후 國師에 임명되어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등 李朝의 기틀을 쌓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李太祖는 1010년 서울을 華閭로부터 大羅城으로 옮기고 이를 昇龍(지금의 하노이)으로 고치는 한편 많은 궁궐을 짓고 성내에는 興天寺를, 그리고 성밖에는 勝嚴寺 등을 창건하였다. 그리고 승려 천여 명을

3) 이외에도 『全書』와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에는 李公蘊이 황제가 되리라는 이야기가 여럿 실려 있다. 일례로 古法州 應太心寺의 感應院에서는 등에 ‘天子’라는 글자가 새겨진 강아지가 태어났다고 한다(『全書』 1984~1986, 207; 『越史略』 1987, 50;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003).

이들 사찰에 거주시켰다. 그는 또한 古法州를 天德府로 바꾸고 그곳에 八寺를 건립케 하였다(『全書』 1984~1986, 208과 212; 『越史略』 1987, 50). 이듬해 李太祖는 또다시 昇龍城 내외에 萬歲寺 · 四大天王寺 · 錦衣寺 등을 세웠다(『全書』 1984~1986, 209; 『越史略』 1987, 50-51). 이후에도 太祖는 다시 昇龍城 내에 불사를 세우며 宋에 사신을 보내 불경을 구해 오게 하는 등 불교의 진흥에 열심이었다.

이러한 李太祖의 불교 중시 태도에 대하여 16세기 초 黎嵩은 “越鑑通考總論”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즉 유학은 진작되지 못하고 僧尼는 민간의 절반에 달하며 佛寺는 천하에 가득하다고 하였다(黎嵩 1984~1986, 88). 1272년 『大越史記』를 편찬한 黎文休 역시 진사 출신의 유학자로서 李太祖의 숭불정책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종묘와 사직이 건립되기 이전 天德府에 八寺를 세운 것이라든가 각지에 사찰을 중수한 것은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膏血을 짜는 행위였다는 것이다(『全書』 1984~1986, 208).⁴⁾

李太祖로부터 150여 년 후의 黎文休가 태조의 성장배경이라든가 李朝 창건 당시의 불교 영향을 물렸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黎文休의 李太祖 비판은 유교적 입장에서 행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李太祖가 왕조 창건 초기에 거대한 토목 사업을 일으켜 국가재정을 궁핍케 했을 뿐만 아니라 民力を 피폐시켜 왕조의 기틀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유인선 2001, 186). 이는 『大越史記』를 찬술할 때 黎文休의 주 관심사가 눈앞의 위협적인 몽골을 바라보며 베트남이 어떻게 하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는 점을(유인선 2001, 179-181)

4) 1479년 『大越史記全書』를 편찬한 黎朝의 吳士連 역시 李太祖가 불교를 보호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다(『全書』 1984-1986, 220).

고려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黎桓은 980년 송의 침입을 물리치고 송과 화친관계를 유지했지만 송은 언제고 기회가 오면 베트남을 침공할 태세였다(『全書』 1984~1986, 199).

李太祖의 뒤를 이은 太宗(1028~1054)⁵⁾ 역시 선왕에 못지않게 불교를 보호하고 장려하였다. 그는 국고로부터 비용을 부담하여 전국의 鄉邑 150여 곳에 불사와 도관을 건립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全書』 1984~1986, 223; 『越史略』 1987, 53), 說法 후에는 천하의 죄인들에게 특별사면을 내려 주었다(『全書』 1984~1986, 226과 230).⁶⁾ 더욱이 1034년에는 두 승려가 입적한 다음 화장한 결과 사리가 많이 나오자 연호를 天成에서 通瑞로 바꾸기까지 하였다(『全書』 1984~1986, 224;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78).

1054년 太宗이 세상을 떠나고 장자인 황태자 日尊이 제위에 오르니 이가 李聖宗(1054~1072)이다. 聖宗 때 역시 불교는 융성하여 새로운 선종인 草堂派가 전래되었다. 聖宗을 제1대 시조로 하여 ‘베트남의 선종’이라고도 불리는 이 종파는 중국인 승려 草堂이 들여온 것이다. 草堂派 선종을 성립시킨 草堂은 처음 스승을 따라 참파에 가서 살다가 1069년 李聖宗의 참파 원정 때 포로가 되어 베트남에 붙잡혀 왔다. 그는 곧 聖宗을 자기 법문에 귀의시키고 國師로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였다(Le Tac 2001, 501;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71; 川本 邦衛 1976, 271).

國師로서 정치적 역할을 한 또 다른 불승으로는 仁宗(1072~1127) 때 枯頭의 이름이 보인다. 『全書』에 따르면 1088년 仁宗이 枯頭를 국

5) 베트남 李朝에서는 연호에 踰月法을 사용한 때문에 吳士連에 의해 ‘一年不二君’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全書』 1984~1986, 218~219). 踰月法은 아직 베트남에 유교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것과 결과였다.

6) 說法 후 죄인을 사면해 준 것은 太宗만이 아니라 李朝 역대 왕이 다 그러하였다(『全書』 1984~1986, 280과 290).

사로 삼아 재상들과 더불어 천하의 사무와 訟事 사건을 처리케 하였다고 한다(『全書』 1984~1986, 251; 『欽定越史通鑑綱目』(이하 『綱目』으로 약함) 1969, 권 3, 46a). 이는 國師가 國事に 참여한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川本 邦衛는 枯頭라는 이름이 比尼多流支派나 無言通派 및 草堂派의 어느 禪師 이름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仁宗과 가장 가까웠던 선사인 無言通派의 제9세대인 空路禪師로 추측하고 있다(川本 邦衛 1976, 274). 1119년 空路禪師가 입적하자 仁宗은 조서를 내려 그가 거처하던 절을 더 넓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香火를 받을 수 있도록 20戶의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991, 106-107; Tran The Phap 1961, 35).⁷⁾

李朝 시기 불교의 융성은 불승이 환생하여 제왕의 후계자가 되는 전설을 낳게 하기도 하였다. 比尼多流支派 제12세대인 道行은 仁宗에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仁宗의 동생인 崇賢侯와 관련을 맺고 후일의 神宗(1127~1138) 즉위에 무언가 역할을 했다는 설화가 『全書』에 보인다(『全書』 1984~1986, 257;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16-218). 전설에 의하면, 道行은 입적하여 崇賢侯의 아들로 태어나니 이가 陽煥으로 仁宗의 뒤를 이어 神宗이 되었다는 것이다. 神宗은 역대 다른 제왕들과 마찬가지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그는 1128년 침공해 오는 眞臘(지금의 캄보디아)의 군대를 장군 李平公이 중북부의 乂安에서 격퇴시켰다는 승전보를 듣고 격퇴의 공을 불교와 도교에 돌렸다. 그리고는 불사와 도관을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게 하였다. 黎文休가 평한 바와 같이, 유교적 관점에서는 먼저 太廟에 승전을 고하고 그런 연후에 조정에서 논공행상을 하는 것이 순서였다(『全書』 1984~1986, 270-271; 유인선 2001, 186-187).

한편 道行은 입적하기 전 제자인 明空에게 神宗에게 접근할 수 있

7) 후자에는 향화를 받들도록 3,000호의 조세를 면제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는 방책을 가르쳐 주어 그는 國師가 될 수 있었으며, 神宗의 사후 아들 英宗(1138~1175) 때에도 국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30-232; 川本 邦衛 1976, 274).

이후 승려가 國師가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었으나, 英宗은 여전히 불교 탐구에 노력하여 草堂派 禪師의 한 사람이 되었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72). 그 뒤를 이은 高宗(1175~1210) 또한 불교에 심취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처’라 일컫게 하는 동시에 그 역시 草堂派 선사의 한 사람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겨놓고 있다(『全書』 1984~1986, 224;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73). 그러나 이 때에 이르면 이미 불교는 부패하여 쇠퇴하고 그 자리를 유학이 서서히 메우게 된다.

李朝에서도 유학을 공부한 유능한 이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당시의 강력한 불교의 영향하에 불교에 더 관심을 갖고 저명한 禪師로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예컨대, 匡越大師는 어려서 유학을 배웠으나 커서는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한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41). 萬行 또한 어렸을 때부터 儒·佛·道 三教를 두루 꿰었다고 하였으며, 無言通의 제7세대인 李朝 초기의 究旨禪師 역시 儒學과 佛書를 꿰뚫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01과 73).⁸⁾ 심지어 과거시험에 합격하고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출가하는 이도 있었다. 比尼多流支派의 제16세대의 일인인 智禪師는 젊어서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일시 관직에 몸을 담았으나 곧 불교에 귀의하여 英宗과 高宗이 누차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43-245). 李朝 시대 저명한 시인 중 불승이 거의 다수를 점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들과

8) 이외에도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에는 어려서 유학공부를 한 선사들이 여럿 열거되어 있다.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베트남 중세문학의 전문가에 의해 1941년 저술된 『李朝의 文學』이라는 책에는 시인 24명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중 太宗과 仁宗, 그리고 仁宗 때의 공부상서였던 段文欽을 제외하면 21명이 승려이다.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慶喜(1067-1142)와 寶覺(1080-1151)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悟道詩集』과 『圓通集』을 남겼다(『アジア・アフリカ研究所 』 편 1977, 211-212).⁹⁾

李朝 시대에 유학교육을 받은 문신들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은 불교의 영향이 강력했기도 했지만, 다른 일면 과거제도의 미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트남에서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仁宗 초인 1075년이었다. 『全書』와 『欽定越史通鑑綱目』에 의하면, 이 해 儒學을 三場으로 나누어 시험한 결과 후일 太師의 직에 오르는 黎文盛을 비롯한 10명이 관리로 선발되었다고 한다(『全書』 1984~1986, 248; 『綱目』 정편, 권 3, 33b-34a; 『憲章』¹⁰⁾ 권 26, 科目誌, 2b; 竹田龍兒 1966, 43-44).¹¹⁾ 과거시험이 없었던 聖宗 때까지 관리등용은 주로 불교승려들의 천거에 의해서였다. 『綱目』에 의하면, 총명한 인물들은 불승이나 도사들이 천거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1075년 시험에서 유학을 열심히 공부한 黎文盛이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綱目』 정편, 권 3, 33b-34a). 이듬해에는 오늘날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國子監이 처음으로 설립되고 文官들을 선발·입학시켜 유학

9) 일설에 의하면, 段文欽은 불교를 옹호해 불교의 저명한 居士로서도 알려져 있다(Nguyen Q. Thang & Nguyen Ba The 1992, 183). 慶喜僧統은 比尼多流支派의 제14세대 선사로 『悟道詩集』은 『悟道歌詩集』이라고도 알려져 있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34-238). 圓通國師로 더 잘 알려진 寶覺은 比尼多流支派의 제18세대 선사의 한 사람으로 李神宗의 신임이 두터워 神宗이 붕어하기 전 그의 廟命을 받았다고 한다. 國師가 된 것은 李英宗(1138~1175)의 大定 4년(1143)이었다(『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2001, 260-263).

10) 潘輝注, 『歷朝憲章類誌』(이하 『憲章』으로 약함).

11) 李朝 시대에 관한 기본자료인 『越史略』(1987)에는 이 기사가 없고 대신 1072년 僧官에 대한 시험이 기록되어 있다(『越史略』 1987, 61).

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全書』 1984~1986, 249; 『綱目』 정편, 권 3, 38a).

仁宗 때 유교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그에 앞선 聖宗 때 부터 서서히 진행된 결과였다. 聖宗은 즉위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나라 이름에서 字喃인 ‘瞿’ 자를¹²⁾ 빼고 ‘大越’ 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일 만큼 베트남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華閩의 전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였음에 틀림없다. 1070년에는 昇龍城 남문 가까운 곳에 베트남 최초로 孔子와 周公 및 공자의 제자 72인의 상을 모신 文廟를 세우고 사시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문묘에는 학교를 부설하여 황태자를 비롯하여 여러 왕자들과 고급관리들의 자제에게 유학을 가르쳤다(『全書』 1984~1986, 245; 『綱目』 정편, 권 3, 30a).

仁宗 치하에서 유학정책을 주도한 인물은 太師였던 李道成이었다. 仁宗은 나이가 겨우 일곱 살로 너무 어렸던 때문에 모든 정책은 李道成이 오늘날 총리 격인 平章軍國重事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李道成은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인데다 유교에도 소양이 깊어 위와 같은 유학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1081년 李道成이 사망하고, 1085년 전술한 黎文盛이 태사가 되자 이듬해 또 다시 과거로 문사를 선발하여 翰林院에 충원시키는 동시에 우수한 자에게는 翰林學士를 제수하였다(『全書』 1984~1986, 251; 『綱目』 정편, 3, 45a-b; 『憲章』 권 26, 科目誌, 2b).¹³⁾

그러나 이러한 유학의 흥기는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1088년 仁宗은 枯頭를 國師로 삼아 國事를 의논하였다. 『全書』의 撰者가 仁宗의 枯頭에 대한 태도를 黎大行的 匡越大師에 대한 그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사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하

12) ‘瞿’ 자는 ‘크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나라’ 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Taylor 1983, 281; Nguyen Khac Kham 1989, 17-47).

13) 黎文盛은 후일(1096년) 謀反에 연루되어 유형에 처해졌다.

였는가를 알 수 있다. 사실 李朝 시대의 과거제도는 미숙한 초기 단계였으며, 정기적으로 행해지지도 않았고 선발인원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합격자가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도 지극히 드물었다. 仁宗의 붕어 후 뒤를 이은 神宗과 신하들이 상복을 일 개월 정도밖에 입지 않은 사실은(『全書』 1984~1986, 268) 유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미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기록에 따르면, 李朝의 과거는 仁宗 때 두 차례 실시된 다음 12세기 후반에 들어가 다섯 번(1152년, 1165년, 1185년, 1193년, 1195년) 시행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200년이란 李朝 전 시기를 통해서 일곱 번 밖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과거시험이 다섯 번 치러졌고, 특히 1185년 시험에서는 30명이 합격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불교의 쇠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해둘 것은 李朝 때의 과거는 유학만을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試三教’라 하여 불교와 도교의 이해능력도 함께 치러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全書』 1984~1986, 306; 『綱目』 정편, 권 5, 26a; 『憲章』 권 26, 科目誌, 3a-b).¹⁴⁾ 李朝 문화가 儒·佛·道 三教를 포괄하고 상호 배타적이지 않았기(Keith Taylor 1986, 149)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치러진 듯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三教를 시험 보는 제도는 陳朝에서도 두 차례(1227년, 1247년) 실시되었다.

한편 1156년 英宗은 聖宗이 세운 문묘와는 별도로 昇龍城에 孔子만을 모신 孔子廟를 건립하고(『全書』 1984~1986, 295; 『綱目』 정편, 권 5, 8b-9a), 그 뒤를 이은 高宗은 1182년 이제까지와는 달리 불승 대신에 儒者인 李經修를 帝師로 삼아 國師의 지위를 대신토록 하였

14) 三教에 대한 시험은 과거의 일부로 행하여지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정식과거와는 달리 三教의 자제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竹田龍兒 1966, 49-51).

다.¹⁵⁾ 이와 관련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高宗은 1198년 승려를 상당 수 도태시켰다는 기사가 사료에 보인다(『全書』 1984~1986, 306; 『綱目』 정편, 권 5, 26b). 또한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高宗 때 踰年稱號法과 三年喪 같은 중국식 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英宗으로부터 高宗 대에 걸친 유교의 대두, 특히 문무를 겸비했다고 하는 太傅 蘇憲誠과 같은 인물의 노력 덕분이었다(『全書』 1984~1986, 301; 『綱目』 정편, 권 5, 18b-19a).¹⁶⁾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高宗이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처라고 부르게 한 데 나타나듯 불교의 영향력은 아직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李朝의 말까지 변함이 없었다.

III. 陳朝시대의 유교

蘇憲誠의 사후 高宗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관리는 부패하여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빈번히 일어났다.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海邑(오늘날 타이 빈 省 劉家村)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陳氏 가문이었다. 高宗이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어 陳氏 가문의 딸과 결혼한 황태자 昀이 제위에 오르니 이가 惠宗(1211~1224)이다. 惠宗은 병약했던 데다 얼마 후에는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여,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前殿指揮使 陳守度는 제위를 차녀 佛金, 즉 昭皇(1224~1225)에게 물려주게 하고 惠宗을 眞教寺로 보냈다. 陳守度は

15) 李經修의 성은 본래 杜氏였으나 國姓을 하사 받아 李씨로 되었다(『全書』 1984~1986, 302; 『綱目』 정편, 권 5, 21b-22a).

16) 李高宗 이전까지 베트남에서는 연호 제정 때 踰年稱號法을 사용해 왔다. 吳士連은 ‘一年不二君’이라 하며 踰年稱號法을 비판하고 있다(『全書』 1984~1986, 217-218).

곧 昭皇을 조카인 陳暲과 결혼시킨 다음 제위를 陳暲에게 선양케 하니 베트남 최초의 장기왕조인 李朝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陳暲은 陳朝(1225~1400)의 초대 황제인 太宗(1225~1258)이지만 나이가 어렸던 때문에 실권은 陳守度에게 있었다. 陳守度는 李朝에 대한 민심의 혐모를 억제하기 위하여 李朝의 종실을 거의 살해하고 생존자는 모두 姓을 阮氏로 바꾸게 하였다(『全書』 1984~1986, 326; 『綱目』 정편, 권 6, 12b-13a). 그런가 하면 李 왕조의 전통, 즉 崇佛思想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인드라 신과 어느 정도 뒤섞인 불교는 陳朝 전 시기를 통하여 李朝에 못지 않게 융성하였다. 예컨대, 역대 12 황제는 불교를 보호하고, 특히 禪의 경지를 추구하여 스스로를 大士라 칭했는가 하면, 妃嬪을 비구니, 왕자들은 비구승이 되도록 권장하여 宗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다(黎嵩 1984~1986, 91; 川本邦衛 1976, 281-282).

陳守度는 왕조가 바뀐 데 대한 민심의 불안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우선 1231년 驛亭마다 불상을 조각하여 세우라는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불상을 세우게 한 것은 太宗의 父로 당시 太上皇이던 陳承이 어렸을 적에 어느 역정에서 쉬고 있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 그의 용모를 보고 훗날 몹시 귀하게 될 분이라고 했다는 예언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全書』 1984~1986, 325; 『綱目』 정편, 권 6, 11a). 이 일화는 陳씨가 李朝를 대신하는 것이 전대에 이미 예정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陳朝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당시 베트남 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陳 왕조가 李朝 못지 않게 불교를 존중한 것은 당연한 사실로밖에 볼 수 없다.

陳太宗은 불교를 존중하여 僧道官관이란 특수 관직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1249년에는 李太祖가 건조한 延祐寺를 대규모로 증축하고, 또 다시 1256년에는 銅鐘 330구를 주조케 하는 동시에 죄인들에게 특사를

배풀었다고 한다.¹⁷⁾ 太宗은 본시 불교를 믿었겠지만 이처럼 심취한 것은, 1258년 아들 聖宗(1258~1278)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태상황으로 물러난 후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臨濟禪의 불승 天封禪師의 가르침을 받으면서였다(川本邦衛 1976, 282).

太宗은 또한 陳朝의 황제들이 遜位 후 出家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숭상하게 하는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 그는 1262년 陳氏의 고향인 卽墨鄉을 天長府로 고치고 그곳의 行宮인 重光宮에 머물면서 궁궐 서편에 淸明寺라는 절을 세워 참선에 정진한 때문에, 후대 황제들도 제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다음 이곳에서 거의 유사한 생활을 하였다(『全書』 1984~1986, 342-343; 『綱目』 정편, 권 7, 4a-b). 聖宗은 제위를 아들 仁宗(1278~1293)에게 넘겨 준 후 天封禪師의 제자인 大燈에게서 참선을 배웠다고 한다.

陳朝 불교에서 특기할 사항은 仁宗 때 일어났다. 仁宗은 아들 英宗(1293~1314)에게 양위하고 출가하여 불도에 전념하면서 無言通派로부터 분리된 竹林派라는 새로운 선종을 개창하였던 것이다. 12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무수한 인명이 피해를 입고 토지가 황폐해진 것을 보며 仁宗은 출가하여 安子山에 들어가 선에 몰입하면서 스스로를 竹林大士라 칭하였다. 竹林派는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지만 중세 베트남에서 선종을 확립시키려는 최초의 참된 노력이었으며, 추종자들은 주로 陳 종실귀족들이었다(Cuong Tu Nguyen 1997, 20-21).

英宗도 仁宗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여, 1295년 元에 사신을 보내 대장경을 구해오게 하고 그 부분을 간행케 했다. 그리고 아

17) 僧道官은 주로 王侯들에게 주어진 특수 관직으로 品階와는 관련이 없었다. 18세기의 유학자 겸 역사가인 吳仕는 銅鐘 330구를 주조하느라 동전을 모두 공급할 정도로, 陳朝의 불교숭상은 李朝 때보다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全書』 1984-1986, 332, 334, 338; 『綱目』 정편, 권 6, 26a, 32b, 39a).

들 明宗(1314-1329)에게 양위 후에는 둘째 황비 靜惠를 출가시켰고(『全書』 1984-1986, 374와 428), 자신도 출가할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상, 陳朝의 불교는 仁宗 때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으며 그 이후로는 내림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불교의 쇠퇴는 불교 자체의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사찰들은 왕공·귀족들이 기진한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불교의 진흥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승려들도 많은 수는 요역이나 병역을 피할 목적이거나 아니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의 수단으로 출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질적인 저하가 현저했다.¹⁸⁾ 그리하여 14세기 중반에는 조정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불교배척이 제기되는가 하면, 陳朝 말에는 승려 중에 范師溫처럼 농민들을 이끌고 반란을 주도하는 자도 나타났다(『全書』 1984-1986, 464).

仁宗 이후 불교의 쇠퇴여부와는 관계없이 陳朝 초부터의 불교승배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영향력은 李朝에 비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원의 침입 시 원군에 항복해 중국으로 잡혀간 黎崩의 『安南志略』에 의하면, 陳朝의 僧官에는 李朝에서와 마찬가지로 國師·僧統·僧錄·僧正·大賢官의 다섯 종류가 있었다(Le Tac 2001, 489). 그렇기는 하지만 최고위 직인 國師만 하더라도 李朝 때와는 달리 명목상의 품계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國師가 陳朝 초기 이미 황제를 측근에서 보좌하지 않고 산간의 사찰에 머무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¹⁹⁾

이처럼 陳朝에서 승려의 정치적 영향력이 李朝에 비해 약했던 것은 陳守度가 현실정치에서 황제와 종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두체제를 도입했던 때문이다. 그는 우선 陳朝 황제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18) 是歲(1344년)凶荒 民多爲僧 (『全書』 1984-1986, 422).

19) “天應政平六年(1237) …… 帝(太宗)內不自安 夜出城就女子山浮雲國師處居焉”(『全書』 1984-1986, 328; 『綱目』 정면, 권 6, 16b-17b).

왕위계승에서 부계제, 장자상속제, 태상황제²⁰⁾ 및 황태자의 황실근친 혼²¹⁾ 등과 같은 관습을 일찍부터 시행했다. 또한 陳朝 권력의 핵심을 陳 왕실의 친족인 왕공과 귀족이 장악하게 하여 이들로 행정과 군대의 고위직을 독점시켰다.²²⁾ 그 위에 왕공과 귀족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많은 농노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사병을 조직하여 훈련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陳朝는 ‘황제1인의 천하’는 아니었고 ‘종실의 천하’였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桃木至朗 1982, 104-105).

한편 陳守度는 지방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중앙집권화를 일층 강화하였다. 전국을 12路로 나누고 각 路에는 해당 지역의 통치를 담당하는 按撫使를 두었다. 路의 하급단위로는 府·州·縣이 있었다. 중앙 정부에는 太師·太傅·太保와 같은 이제까지의 직제 외에 새로운 기구들이 설치되었는데, 주목할 기구는 審刑院이다. 심형원은 황실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사회기강을 어지럽히는 범법자의 처벌을 위해 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230년에는 이미 『刑律』이 제정되었는데(『全書』 1984~1986, 324; 『憲章』 권 33, 형률지, 4b; 『綱目』 정편, 권 6, 8b-9a), 현존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嚴酷했다고 한다.²³⁾

陳朝는 이상과 같은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충원하기 위해 일찍부터 과거제를 도입하여 유교사상으로 훈련받은 인재들을 등용하였다. 창건

20) 太上皇制란 황제가 생존 중 태상황으로 물러났고 장자를 왕위에 앉히는 제도를 말한다. 태상황은 국가의 중대사가 아닌 일반 정무에는 간여하지 않았다. 이 제도의 주목적은 왕위계승분쟁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다(黎澄 1986, 13). 黎澄은 후일 陳朝를 찬탈하는 胡季犛의 장자이다.

21) 황실근친혼의 이유는, 陳氏가 외척으로써 李 왕조를 찬탈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異姓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桃木至朗 1982, 118, n. 108).

22) “(1236년)……凡宗室入政府 或太師·太傅·太保·太尉·或司徒·左右相國 皆兼授檢校特進(義同三司平章事)”(『全書』 1984~1986, 327); “(1246년)……宰相則擇宗室賢能有道藝通詩書者爲之”(『全書』 1984~1986, 333; 『綱目』 정편, 권 6, 29a).

23) 법이 엄혹했다고 하는 것은 陳守度가 陳朝 황실의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에 틀림없다(『憲章』 권 33, 형률지, 1b).

직후인 1227년 유교·불교·도교의 三敎 자제들을 시험 보았으며, 이어 儒者만의 시험은 1232년에 실시되어 5명이 합격되었다(『全書』 1984~1986, 326).²⁴⁾ 7년 후인 1239년에는 또다시 과거시험을 보아 4명을 합격시켰다. 이에 조금 앞선 1236년에는 과거합격자가 궁궐에 들어가 황제에 入侍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國子院을 설치하고 문신자제의 입학을 허락하여 주었다(『全書』 1984~1986, 327). 그런가 하면 1243년에는 국자감을 중수하고, 10년 뒤인 1253년에는 國學院을 설립하여 공자와 주공 및 亞聖 72인의 彫像을 모시게 하였다. 동시에 국자원에서는 儒者들이 四書와 六經을 강론케 해주었다(『全書』 1984~1986, 336; 『綱目』 정편, 권 6, 35b-36a).

이러는 과정 속에서 陳朝의 과거제도도 1246년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다. 이 해 이후 과거시험은 7년마다 실시하기로 하고, 이듬해인 1247년 시험에서는 모두 51명이 합격하였는데,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 壯元·榜眼·探花의 칭호를 주었다(『全書』 1984~1986, 333; 『憲章』 권 26, 科目誌, 4a; 『綱目』 정편, 권 6, 29b-30a; 竹田龍兒 1966, 488).²⁵⁾ 이해에는 三敎의 자제들을 선발하는 시험도 보았다. 그러나 예정대로 과거시험이 7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陳朝 말까지 시험은 10차례(1256년, 1266년, 1275년, 1304년, 1314년, 1345년, 1374년,²⁶⁾ 1381년, 1384년, 1393년) 치러졌을 뿐이다.²⁷⁾ 13세기 후반에 3차례밖에 시험이 치러지지 않은 것은 몽골의 3차에 걸친 침입(1257년, 1284-1285년, 1287년) 때문이었다. 이들 시험은 중국에서처럼 鄉試·會試·殿試(또는 御試)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때

24) 베트남에서 과거합격자를 一甲·二甲·三甲이라 하여 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이다(『憲章』 科目誌, 3b; 『綱目』 정편, 권 6, 12a).

25) 『大越史記』의 찬자로 유명한 黎文休는 이 때 榜眼으로 합격하였다.

26) 베트남에서는 이 해부터 과거합격자를 '進士'로 불렀다(『全書』 1984~1986, 445; 『綱目』 정편, 권 6, 12a).

27) 해당 연도의 과거합격자 수에 대해서는 『憲章』 권 28, 科目誌, 1b-3a를 참조하라.

에 따라 회시 또는 전시에 해당하는 고시가 치러졌을 뿐이다. 베트남에서 과거시험에서 3단계를 거치도록 규정된 것은 陳朝 말인 1396년에 이르러서였다(『全書』 1984-1986, 470; 『憲章』 권 26, 科目誌, 6b-7a; 『綱目』 정편, 권 11, 24a-25a).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려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선발된 관리들의 영향력이 지극히 미미했다. 陳朝 권력의 핵심은 상기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陳氏 종실에 있었으며, 이들은 문무의 최고위 관직들을 독점하였다. 일반 문신관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陳氏 종실 인물들을 보좌하면서 단지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지나지 않았다.²⁸⁾

儒者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257년 몽골의 침입이었다. 陳朝는 몽골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으나, 몽골의 재침을 인식하고 곧 사신을 파견하여 和約을 맺고 3년에 한 번 入貢할 것을 약속하였다. 聖宗 치세 중에 몽골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없었으나, 나라 이름을 元으로 고친 쿠빌라이가 즉위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베트남의 각종 특산물의 공납을 요구하는 한편,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설치하여 陳朝의 내정에 간섭하려 들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왕의 親朝, 왕자의 인질, 賦稅의 납부 등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²⁹⁾ 陳朝는 원의 강압적인 태도를 이기지 못하고 화친정책을 취하여 코끼리를 헌납하고 왕자를 입조시켰다. 그러나 원의 강경한 태도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이처럼 원과의 관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섭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유학의 소양을 쌓은 文士들이었다. 이들은 오만한 원의 사신들을 환대하여야 했는가 하면, 또 원 조정에 사절로 가 몽골 황제의 무리

28) 예외적으로, 1232년의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陳周蕃가 1251년 御史中相의 요직에 있었다는 기록이 『全書』에 보인다(『全書』 1984-1986, 335).

29) 몽골의 강압적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山本達郎(1975, 87-97)를 참조하라.

한 요구를 완화시키는 책임을 졌다. 이러한 과정 중에 조정 내에서 문사들의 지위가 높아져 고위 관직에 오르는 자도 나타났다. 『全書』에 의하면, 1267년 그 때까지 환관이 맡았던 行遣의 직에 ‘文學之士’가 처음으로 임명되었다(『全書』 1984~1986, 345-346; 『綱目』 정편, 권 7, 9a-b; Wolters 1979, 78). 陳朝에서는 종실만 재상이 될 수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이들은 주로 고향에 머물렀던 때문에 조정 내에서 실제 권력을 행사한 것은 行遣이었다(『全書』 1984~1986, 342; 和田正彦 1976, 31). 聖宗이 1266년의 과거시험에서 47명의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라든가, 이듬해 동생 陳益稷으로 하여금 학교를 개설하고 의식을 지급하면서까지 문사를 양성케 한 것 등은³⁰⁾ 모두 이러한 문사들의 등장을 배경으로 해서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과거시험을 통해 선발된 이들 ‘文學之士’를 순수한 유학자로 인식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조정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유교적 원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고전에 입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월터스 교수는 이런 점에서 이들을 ‘고전주의자’(classicist)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Wolters 1979, 75),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중세 베트남史 연구자들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Whitmore 1987, 49-65). 元이라는 거대한 몽골 세력에 맞서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던 이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배운 중국고전 밖에 없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현실문제의 해결을 할 때 동서양의 고전들을 참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새로운 文士들이 중국고전에 의거하여 현실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 했다면 그들은 자연 불교에 대해 호의적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러

30) 이 학교는 훗날 元에 가서 명성을 떨친 莫挺之를 비롯하여 20여 명의 유능한 인재를 배출했다(『全書』 1984~1986, 346; 『綱目』 정편, 권 7, 9b-10a).

한 예를 黎文休의 『대월사기』에서 엿볼 수 있다. 黎文休가 李太祖의 불교사원 건조에 대해 비평적이었던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이거니와, 이러한 비평의 일면에는 黎文休 당시 강력했던 陳朝의 불교세력에 대한 우회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유인선 2001, 186). 또 다른 예는 1043년 반란을 일으킨 타이系的 지도자를 儂智高를 관대히 처분해 준 李太宗에 대한 비난이다. 太宗이 ‘佛教的 小仁’에 얽매어 ‘大義’를 망각했다는 것이다(『全書』 1984~1986, 233; Wolters 1979, 75; 유인선 2001, 185). 비난의 요점은 반란의 주동자를 처형하지 않음으로써 왕조의 안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지만, ‘佛教的 小仁’이란 표현에서 黎文休나 당대 문사들의 불교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적 표현은 당시 조정 내에서 불교가 유교를 압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1차 몽골의 침입 후 등장했던 문사들은, 몽골의 제2차 침입과 제3차 침입이 있는 1280년대 이후 그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 그 대신 抗元戰의 영웅인 陳國峻·陳光啓·陳日燾·陳國璘 등 종실의 핵심인물들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의 중핵을 이룬다. 물론 范五老·陳克終³¹⁾같은 異性官僚도 등장하지만 이들은 문사층이 아니라 전쟁의 영웅들이었다. 1306년 태상황 仁宗이 朝野文人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玄珍公主를 참파 왕에게 출가시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全書』 1984~1986, 388; 『綱目』 정편, 권 8, 43b-44a). 그렇다고 문사층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소홀해진 것은 아니었다. 1304년 29년 만에 다시 과거가 실시되어 44명의 합격자를 낸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官僚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황제나 종실 귀족의 호의로 관계에의 진출을 모색하는 정도였다. 莫挺之가 陳益稷의 學堂에서 공부했음은 이

31) 陳克終의 본래 성은 杜씨지만, 戰功에 의해 국성을 하사 받았다.

미 언급한 바이거니와, 張漢超와 陳時見 같은 이는 興道王 陳國峻의 문인이었다고 한다(『全書』 1984~1986, 380; Whitmore 1987, 53; 桃木至朗 1982, 108-109).

문사층이 재등장하는 것은 1314년 明宗이 즉위하면서부터인즉, 이 때에 이르면 전쟁의 영웅들이 노쇠하거나 陳 종실 요인들의 능력이 쇠퇴하였다(Wolters 1979, 436). 明宗이 즉위한지 몇 달 안되어 후일의 인재등용을 위한 목적에서 과거시험이 치러졌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부자 및 부부 사이의 고발이 금지되었다(『全書』 1984~1986, 396; 『綱目』 정편, 권 8, 11b). 1320년대에 들어서면 문신관료층의 대두는 더욱 두드러져, 『全書』는 ‘人才彬彬’이라고 하면서, 陳時見 · 莫挺之 · 阮忠彦 · 黎(伯)括 · 范師孟 · 張漢超 등 13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全書』 1984~1986, 403). 이들은 1370년대 초까지 조정의 각종 요직을 차지하고 內治를 주도하였다.

이들의 정책은 점차 고전주의자로부터 유학자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새로운 정책은 중국적 제도의 도입과 사회개혁의 주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통을 고수하려는 이들이 이를 묵과할 리 없고 자연 양자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黎伯括과 范師孟이 제도의 개혁을 들고 나오자, 明宗은 국가에는 각기 고유의 습관이 있어 남북(베트남과 중국)이 서로 다른데 만일 ‘白面書生’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全書』 1984~1986, 429-430; Whitmore 1987,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사는 개혁을 계속 시도한 때문에 藝宗(1370~1372)은 즉위와 동시에 모든 제도는 明宗 때인 開泰 연간(1324-1329)의 제도에 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다(『全書』 1984~1986, 439; 『綱目』 정편, 권 10, 27a-b; Wolters 1979, 444).

한편 이들 문사는 불교배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張漢超는 불교를 강력히 배척하는 인물로 일찍이 지방 사찰의 비문에 불교를 배척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주었다고 한다(『全書』 1984~1986,

427; 『綱目』 6b-7a). 黎(伯)括은 유학을 장려하고 불교를 배척하라는 奏請을 藝宗에게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全書』 1984~1986, 441). 불교 배척의 공식적인 주청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문사들의 이러한 불교배척 경향에 대해 불교계가 위기를 느꼈을 것은 분명하다. 『越甸幽靈集』이나 『禪苑集英』(일명 『大南禪苑傳燈集錄』)의 편찬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Whitmore 1987, 55; 유인선 2002, 152-153). 전자는 서명이 보여주듯이, 李朝 때까지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전설 가운데 27편을 모아 놓은 설화집으로 불경의 보관을 책임지고 있던 李濟川이란 이가 1330년대 직전에 편찬하였다.³²⁾ 『禪苑集英』의 저자는 불명으로 6세기 말부터 李朝 말까지 베트남 선종을 대표하는 고승들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는데, 1330년 중반에 저술된 것으로 추측된다.

14세기 중반에 이르면 陳 종실의 장원확대, 불교계의 부패, 참파의 침입 등으로 인해 陳朝는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明宗이 상황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은 그런 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1357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裕宗(1341~1369)은 향락에만 빠졌고, 그의 뒤를 이어 잠시 楊日禮가 제위에 올랐으나 곧 제거되고 말았다. 藝宗(1370~1372)은 허약한데다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었다. 그는 1371년 참파가 서울 昇龍을 침략한 사건을 계기로 제위를 동생 睿宗(1373-1377)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상황이 되었으나, 정치에 더욱 무관심해져 정사를 외사촌 黎季犛, 즉 胡季犛에게 맡겼다.³³⁾

睿宗의 치세는 참파의 잦은 침입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런 가운

32) 이 책의 주 내용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인물들이나 이들을 도와준 승려와 정령들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베트남의 고유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33) 黎季犛의 조상은 본래 성이 胡씨로 중국 浙江 지방에 살다가 五代의 혼란기에 베트남 演州로 이주했다. 그로부터 12대 후손이 淸化로 거주를 옮기고 黎씨 집안의 양자가 되어 성을 黎씨로 바꾸었으며, 胡季犛는 바로 그의 4대 孫이다.

데 1374년에는 오랜만에 과거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睿宗이 참파 원정 중 전사하자 廢帝(1377-1388)가³⁴⁾ 뒤를 이었다. 廢帝 시대에 상황인 藝宗은 아직 생존 중이었지만 정권은 완전히 胡季犛 손안에 있었다. 胡季犛가 정권을 장악하자 유학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 1381년, 1384년, 1393년 등 10여 년 동안에 3차례나 과거시험을 보았다. 다른 한편 1396년에는 승려와 도사를 대량 도태시켜 50세 미만인 자는 환속케 했다. 또 시험을 보아 합격한 자에게만 사찰이나 도관의 책임을 맡겼다(『全書』 1984~1986, 470; 『綱目』 정편, 권 11, 23a). 상술한 1389년 불승 范師溫의 반란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으로, 불교는 더 이상 국가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IV. 胡朝와 明 지배기의 유교

陳朝는 외척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황실근친혼 정책을 철저히 채택하였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황실근친혼 정책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자 아이러니컬 하게도 외척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胡季犛가 陳 왕실과 관계를 맺고, 후일 陳朝의 제위를 빼앗아 자신의 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두 고모가 明宗의 후궁이 되어 한 사람은 藝宗을 낳고 다른 한 사람은 睿宗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그가 권력의 중추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日禮를 축출하는데서 후일의 藝宗과 睿宗을 도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공로로 인해 胡季

34) 廢帝라고 불리는 것은 胡季犛에 의해서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羣는 1371년 5월 樞密院大使에 임명되고 9월에는 忠宣國上侯에 봉해졌다(『全書』 1984~1986, 442-443; 『綱目』 정편, 권 10, 31b-32b; 구법진 1996, 18).³⁵⁾ 한편 그는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藝宗의 누이를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자신의 사촌 누이동생을 睿宗과 결혼시켰다.

뿐만 아니라 胡季羣은 조정 내에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 자신의 친족과 동향인을 각종 직책에 천거하였다. 1372년 胡宗鸞이 翰林院學士에, 化州人 胡隆이 化州 知州에 임명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全書』 1984~1986, 443). 胡宗鸞은 14년 후 다시 胡季羣의 후원에 의해 한림원의 책임자로 승진한다. 1374년의 과거시험도, 睿宗은 참파 원정에 주력하고 있었음으로 상황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는 하지만 胡季羣의 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과거합격자에게는 연회를 베풀어주고 특히 최고성적을 얻은 3명에게는 3일 동안 거리를 행차하게 하여 그 영예를 기리어 주었다(『全書』 1984~1986, 445; 『綱目』 정편, 권 10, 35a-b).³⁶⁾ 당시 전례 없이 50명이란 많은 수의 합격자를 낸 것은 胡季羣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했음에 틀림없다.

胡季羣은 증대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陳 종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문신층으로 대체코자 하였다. 전술한 1381년, 1384년, 1393년의 과거시험에서 각각 30여 명을 선발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375년 참파 원정에 필요한 군사훈련을 위해 장군을 선발할 때 종실이 아니더라도 관원 중에서 무예와 전술에 유능한 자를 임명한 일은 흥미롭다(『全書』 1984~1986, 446; 『綱目』 정편, 권 10, 36a-b). 전에는 군사문제에서 언제나 종실이 위주가

35) 樞密院은 1342년 尙書省으로부터 禁軍에 대한 관할권을 이양 받았기 때문에 그 권력은 막강했다(『全書』 1984~1986, 421).

36) 이 해의 시험에서 阮應龍, 즉 후일의 阮飛卿도 합격하였다고 한다. 阮飛卿은 黎朝의 개국공신 阮鴈의 아버지이다.

되었다. 그들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었다.

이 무렵 陳朝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북쪽으로부터 다가왔다. 1368년 원에 대신하여 明이 중국의 패자로 등장한 것이다. 처음 양국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1384년 雲南 지방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명은 陳 조정에 군량미 5천 석의 제공을 요구했다. 당시 陳朝의 재정상태로는 무리한 요구였지만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명은 계속 사절을 보내 승려 20명 및 각종 남방식물의 묘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의 요구들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胡季犛가 명이 자신의 권력장악을 문제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山本達郎 1975, 144-145).

이런 가운데 참파의 침입도 일단락 되었다. 1389년 참파 왕 制蓬峨가 홍강델타의 싸움에서 전사한 것이다. 참파와의 전쟁으로 베트남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으며, 특히 陳朝의 재정을 몹시 압박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1378년 인두세를 신설하고 모든 丁男은 1년에 錢 3貫씩을 납부하도록 했다.³⁷⁾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난한 농민들은 세금과 요역을 피해 장원의 농노가 되거나 無籍의 승려가 되었다. 전기한 1396년 승려의 대량 도태는 排佛政策의 의미도 있지만 人力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더 컸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은 1392년 軍民 중 役을 도피하는 자는 罰錢 10관에 刺項 4字의 처벌을 받게 한 것으로 입증된다(『全書』 1984~1986, 467; 『綱目』 정편, 권 11, 17b-18a). 1397년에 반포된 限田法의 목적 또한 조세와 요역 및 군역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물론 이 법의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陳 종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嫡系의 왕자와 공주 외에는 누구도 10畝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全書』

37) 이전에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자는 면세 혜택을 받았다(『全書』 1984~1986, 453-454; 『憲章』 권 29, 국용지, 16a; 『綱目』 정편, 권 10, 44b-45a).

1984~1986, 473; 『綱目』 정편, 권 11, 30b-31a; 『憲章』 권 30, 국용지, 10a-b; Whitmore 1985, 50).³⁸⁾

胡季犛의 陳 왕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는 1388년 廢帝의 퇴위강요로 나타났다. 그는 廢帝를 몰려나게 한 다음, 상황 藝宗의 막내아들인 顯, 즉 順宗(1388-1398)을 즉위시키고 자신의 장녀와 결혼시켰다. 이때 연호사용에서 踰月法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음은 당시 조정 내 유교이념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胡季犛는 陳朝에 충성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거하고, 이들의 자리를 자기의 친족이나 당파로 채웠다. 그는 淸化 출신이었기 때문에 淸化와 乂安 사람들을 중요했으니, 그 대표적 예는 1393년 演州人 胡綱을 左聖翊軍 사령관에 임명한 것이었다(『全書』 1984~1986, 468; 『綱目』 정편, 권 11, 18b-19a).³⁹⁾ 같은 해 치러진 과거시험도 자기 당파를 확대하려는 의도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일년 앞서 胡季犛는 유교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明道’ 14편을 지어 順宗에게 바쳤다. 그는 여기에서 周公은 先聖, 孔子는 先師라고 하면서, 문묘에다 周公을 南面, 그리고 孔子는 西面을 향하게 하여 모시도록 주청했다. 뿐만 아니라 胡季犛는 韓愈를 ‘盜儒’라 부르고, 程顥·程頤·朱子 등 7인은 박학하기는 해도 표절에만 힘쓴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그의 주장은 신유학에 대한 철저한 배척이었다. 1374년과 1384년 과거시험에서 각각 장원으로 합격한 陶師錫과 段春雷는 그 불가함을 논하다가 강등되거나 유형에 처해졌다(『全書』 1984~1986, 467-468; 『綱目』 정편, 권 11, 18a-b; Whitmore 1985, 34-35). 胡季犛가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는 불명하지만, 아마도 이

38) 위트모어 교수는 적계의 왕자와 공주에게 무제한 토지소유를 인정한 것은, 胡季犛가 이미 陳 왕조의 찬탈을 품고 자신의 자손들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39) 胡季犛는 이 때 이미 舊姓으로 고칠 것을 마음먹고 胡綱을 기용했다고 한다.

때쯤에는 陳朝 찬탈의 뜻을 굳히고 신유학의 충효사상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胡季犛의 찬탈의도를 파악한 상황은 1394년 4월 그를 불러, “짐이 세상을 떠난 후 官家[황제]가 보필할 가치가 있으면 도와주고, 용렬하고 아둔하면 그대 자신이 취해도 좋다”라고 하였다(『全書』 1984~1986, 469; 『綱目』 정편, 권 11, 19a-b; Whitmore 1985, 36). 상황이 실제로 의도했던 것은 胡季犛에게 간접적으로 周公과 같은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구범진 1996, 23).

胡季犛는 자신에게 탄 뜻이 없음을 맹세했지만, 그해 12월 상황이 사망하자 곧 入內輔政太師 平章軍國重事가 되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자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그는 우선 황제인 順宗을 가르치기 위해 『書經』의 “無逸編”을 國語, 즉 字喃으로 번역하였다(『全書』 1984~1986, 470; 『綱目』 정편, 권 11, 22b-23a; Whitmore 1985, 40). “無逸編”의 내용은, 周公이 어린 왕에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를 가르친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을 周公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396년 胡季犛는 또 다시 『詩經』에 주석을 가한 “國語詩義并序”라는 글을 지어 后妃와 궁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전서』에 의하면, 그는 서문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많이 가미하여, 朱子集傳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全書』 1984~1986, 471; Whitmore 1985, 41).

이로 보면 胡季犛는 유학에 대한 조예가 깊고 또한 국어에도 능통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국어의 보급과 그에 따른 국어시의 발달은 몽골침입 이후의 민족문화 창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국어시의 대표적 시인으로는 阮銓(일명 韓銓)과 朱文安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당시까지 한자와 한문에 대하여 속자나 속어라 천시되던 민족 본래의 언어가 문학언어의 지위까지 올라갔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는 거듭 말하거나와 민족의식의 발흥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어시의 발달에 힘입어 胡季犛는 陳朝를 찬탈하고 제위에 오른 후 국어를 조정의 공식문자로까지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胡季犛는 또한 과거와 교육의 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1396년 그는 과거시험에서 이전까지 불확실했던 鄉試法을 실시하여 지역시험에서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해 치르는 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회시에서 합격하면 御試를 보아 등급이 매겨졌다. 시험 과목은 胡季犛가 周公을 숭배한 때문에 四書보다는 五經이 중시되었다(『全書』 1984~1986, 471; 『憲章』 권 26, 科目誌, 6b-7a; 『綱目』 정편, 권 11, 24a-25a; Whitmore 1985, 42-43). 이와 아울러 그는 교육의 보급에 힘써 1397년 山南과 京北 및 海東의 각 路와 府에 學官 1명씩을 파견하고 이들에게 官田을 지급해 주었다. 路官은 學官의 교육을 감독하여 매년 말 우수한 자를 조정에 보내도록 되었으며 황제는 이들을 시험 보아 성적이 좋으면 관리로 임명하였다(『全書』 1984~1986, 473; 『綱目』 정편, 권 11, 29b-30a; Whitmore 1985, 49). 결국 이러한 제도는 胡季犛가 자기의 이념을 사회에 널리 보급하는 동시에 지지자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1397년 胡季犛는 順宗을 강요하여 새로 건설한 淸化의 西都로 서울을 옮기게 한 후, 이듬해 이제 겨우 세 살인 태자에게 선양케 하였다. 새 황제인 少帝(1398~1400)는 陳朝의 마지막 군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399년 조정 내에서는 陳 황실의 지지세력들이 胡季犛를 제거하려다가 일이 사전에 발각되어 370여 명이 처형을 당했다. 대규모 살육은 반대파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신망을 크게 떨어뜨려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胡季犛는 國祖章皇이라 자칭하고 황궁 내에 머물면서 출입할 때에는 태자에 준하는 의례를 갖추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400년 2월 少帝로부터 선양의 형식을 빌려 황제의 지위에 올라 연호를 聖元, 나라 이름을 大虞로 하고 姓을 본래의 胡씨로 고쳤다. 그는 胡씨라고 함으로서 전설적인 인물인 胡公 滿과 관계를 맺고, 다시 그를 통해 조부인 舜임금과 연결시키려 했던 것이다(『全書』 1984~1986, 477-478; 『綱目』 정편, 권 11, 36b-37a; Whitmore 1985, 58). 이제 그는 잠정적으로 택했던 周公의 역할을 던져버리고 周公을 넘어서 舜임금과 직접 연결고리를 맺으려 했다.

胡季犛는 제위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陳朝의 군주들이 그랬듯이 1400년 12월 제위를 아들 胡漢蒼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태상황이 되었다. 제위를 빨리 물려준 것은 자신의 찬탈행위에 대한 대내외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모든 실권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다.

胡季犛가 당면한 문제는, 첫째 국내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 둘째 明의 책봉을 받는 것, 셋째 참파와의 전쟁이었다. 胡季犛는 陳朝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실에 많이 의존하였지만 문사층도 대량 등용하였다. 이들은 대개 1380년대와 1390년대의 과거합격자들로 胡季犛의 유학이념에 따라 합격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즉위 직후 1400년에도 시험을 보아 20명의 합격자를 관리로 임용하였다.⁴⁰⁾ 1405년의 과거시험에서는 170명이란 전례 없이 많은 수를 선발했는데 이는 지지층을 대량 확보하려는 의도였음에 틀림없다. 이 때는 특히 명의 침입이 임박했던 무렵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胡季犛는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준 직후 명에 사신을 보내, 陳씨는 후사가 끊겼기 때문에 외손인 胡漢蒼이 뒤를 이었다고 하면서 책봉을 요청하였다. 명에서는 永樂 원년(1403년) 사절을 파견하여 이를 승인해주었다(『全書』 1984~1986, 479; 『綱目』 정편, 권 11, 39a; 山本達郎 1950, 275-276).

40) 명과의 싸움에서 黎利의 오른팔 역할을 한 阮薦은 이 때의 시험에서 합격했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 곧 악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3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첫째는 양국의 국경문제, 둘째는 참파에 관한 문제, 셋째는 胡氏의 篡立에 관한 문제였다(山本達郎 1950, 277-279). 우선 불거진 문제는 양국 사이의 국경분쟁이었다. 廣西省 思明府의 타이계 추장이 전에 자기의 영토였던 祿州·西平州·永平寨를 胡씨가 빼앗았다고 명에 호소했던 것이다. 다음의 문제는 참파가 사신을 보내 胡씨가 明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대적인 침범을 하여 존립이 위태로우니 간여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의 두 문제보다도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胡씨 篡立의 문제로, 이는 명이 베트남을 침공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404년 陳朝의 신하였던 裴伯耆가 명 조정에 나타나 胡씨의 찬탈 사실을 전하고, 이어 陳씨의 일족이라고 자칭하는 陳天平(일명 陳添平)이 와서 같은 이야기를 하자 永樂帝는 베트남을 정복할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陳天平의 출신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고, 또 그의 上奏文도 명 관리의 위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山本達郎 1950, 282-286), 명은 이미 1404년 베트남 정복을 결정했던 것 같다.

胡季犛는 명의 침입이 임박함을 감지하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에 대처하였다. 1406년 명이 陳天平을 왕위에 앉히려고 그와 그를 호위한 명군을 베트남 역내로 들여보내자 양국 군대 사이에는 충돌이 벌어졌다. 이 때 陳天平은 포로가 되어 처형되었다.

이를 예상했던 永樂帝는, 胡씨 부자의 죄로 안남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빼앗았다는 것과 중국의 正朔을 받들지 않고 마음대로 황제를 칭하며 나라이름을 大虞라 한 것 등등 20가지 죄상을 열거하면서 陳 왕실을 재건시킨다는 명목으로 베트남 정벌을 결정했다(Whitmore 1985, 88-89). 그는 215,000명의 원정군을 동서 양군으로 하여, 동군(135,000명)은 張輔가 총사령관이 되어 광서성에서 諒山 지방을 공격케 하고,

서군(80,000명)은 沐晟의 지휘 하에 운남성에서 紅江 유역을 따라 진군토록 명령을 내렸다.⁴¹⁾

광서와 운남을 출발한 명의 원정군은 1년도 채 안되어 胡軍을 격파하고 胡씨 부자를 생포하는데 성공했다. 명의 원정군은 1406년 초겨울 베트남을 공격한지 두 달만에 東都인 昇龍과 胡씨의 수도 西都를 십사리 손에 넣었다. 이어 명군은 도망치는 胡季犛 부자를 남쪽으로 계속 추격하여 1407년 여름 이들을 河靜 지역에서 붙잡아 南京으로 압송했다. 결국 胡季犛 정권은 7년만에 무너지고 베트남은 安南이 아니라 명제국의 일부인 交趾로 간주되어 동화정책이 실시되었다.

동화정책을 위해 총사령관 張輔는 1408년 여름까지 모두 472개의 문무 관아를 설치하였는데, 이들 중 최고 관청은 중국 본부에서의 지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행정·감찰·군사를 담당한 布政司·按察司·都指揮司였다. 省 아래의 행정단위로는 府·州·縣이 있었으며, 군사기구 역시 衛所制에 따라 衛와 所를 설치했다. 이들 관아의 숫자는 후대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1408년 당시에는 府 15, 州 41, 縣 208, 衛 10, 所 2였다(山本達郎 1950, 586; Ngan Nan Tche Yuan[安南志原] 1932, 11 참조). 이들 관아 중 중추기관인 都·布·按 三司 및 衛는 交趾의 핵심지역인 昇龍에 두어졌다.

명이 이처럼 많은 관료기관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지배의 초기에 해당하는 1415년까지는 상당수가 이름뿐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山本達郎 1950, 595). 이유는 그 많은 수의 관직을 중국으로부터 파견한 관리로 충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혹 파견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좌천되어 오는 자가 많은 것이 문제점이었다. 이로 인해 交趾의 행정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41) 중국사료에는 원정군의 수가 80만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과장된 숫자이고 실제는 215,000명이었다. 동군의 총사령관은 처음 朱能이었으나 도중에 병사한 관계로 張輔로 바뀌었다(山本達郎 1950, 307-309).

방법으로 永樂帝는 베트남인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관직을 수여케 했다. 그리하여 張輔 등은 한 때 9,000명 이상을 천거했다고 한다(『明史』 1974, 권 321, 8317).

명의 관료기구가 미비했던 데는 베트남 각지에서의 반항세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여러 반항세력 중 중요한 것은 藝宗의 차남 陳頤, 즉 簡定帝와 그 뒤를 이은 陳季擴의 저항이었다. 簡定帝는 1407년 11월 乂安에서 거병하여 東都를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컸으나 자체 내의 분열로 지리멸렬해지고 말았다. 陳季擴의 세력 역시 沐晟의 군대를 패배시킬 정도로 명군에 위협적이었으나 張輔의 두 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414년 그는 마침내 생포되어 燕京으로 압송된 후 처형당했다.

이후 베트남의 정세는 소강상태로 들어가 명은 본래 의도했던 대로 동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중국문화를 보급시키는 데는 중국적 학 교제도의 도입이 필요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407년 黃福은 布政使 檢 按察使로 부임하자마자 기존의 베트남 교육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양자인 黃宗儒를 자진해서 입학시킬 정도였다(『安南志原』 1932, 106). 『安南志原』에 따르면, 1410년대 중반 학교 수는 모두 161개교로 府學이 14, 州學이 34, 縣學이 113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히 우수한 학생은 입학연한에 관계없이 ‘貢生’으로 선발되어 燕京의 국자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명의 지배기간 중 베트남인으로 貢生이 된 자는 모두 161명이었다(『安南志原』 1932, 107; 山本達郎 1950, 596-597; Whitmore, 1985, 125). 베트남 사료에 의하면, 貢生의 선발은 府學은 매년 2명, 州學은 2년에 3명, 縣學은 매년 1명이었다가, 나중에는 府學은 매년 1명, 州學은 3년에 2명, 縣學은 2년에 1명으로 축소되었다(『全書』 1984~1986, 511; Whitmore 1985, 125). 貢生으로 선발된 학생은 후일 귀국하여 관리로서 명의 지배체제를 돕는가 하면, 다른 일면에선 중국적 이념의 보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1416년

명은 유학 외에 醫學・陰陽學・僧綱司・僧正司・僧會司・道紀司・道正司・道會司 등을 각지에 다수 설치하여 문화보급에 주력하였다(『安南志原』 1932, 129; 山本達郎 1950, 597).

다른 한편, 명은 1418년 베트남의 모든 고급도서를 수합하여 본국으로 보내는 동시에, 이듬해에는 四書五經과 『性理大全』 및 孝順 관련 서적을 府・州・縣의 각급 儒學에 나누어주고 불경도 僧道司에 전해 주었다(『全書』 1984~1986, 516-517; Whitmore 1985, 123).

그러나 이러한 명의 동화정책은 오래가지 못했다. 1418년부터 베트남 각지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저항세력은 黎利로, 그는 1418년 淸化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오랜 저항 끝에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는데 성공했다. 黎利의 저항운동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시기는 1423년까지로 이 때는 매우 취약하여 게릴라 전술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거짓 화약을 맺고 反明活動을 중단했다.

둘째 시기는 1424년부터 142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그의 세력은 淸化 지방을 넘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 마침내 명의 군대를 몰아내고 黎朝(1428-1788)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전세의 변화는 단순히 黎利 군대의 강화만이 아니고 1424년 永樂帝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뒤를 이은 仁宗과 宣宗이 베트남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山本達郎 1950, 669-671). 조정의 후원을 잃은 명군 사령관 王通은 黎利 군대에 몇 차례 대패한 후 침공의 명분이었던 陳 왕실의 재건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1427년 12월 철군을 서둘렀다. 이리하여 黎利는 마침내 항전 10년만에 20년에 걸친 명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금 민족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V. 黎朝 초기의 유교

王通이 철군하기 전 黎利는 陳 藝宗의 먼 조카뻘로 그 때까지 胡翁이란 이름으로 河靜에 살고 있던 陳騫를 왕위에 올립하였다. 黎利는 베트남인들이 명과의 오랜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 王通의 제의를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명의 군대가 물러가자, 黎利, 즉 太祖(1428~1433)는 1428년 여름 東都에서⁴²⁾ 즉위하여 연호를 順天이라 하고 나라이름을 大越로 고쳤다. 우리가 흔히 黎朝라고 하는 왕조는 이리하여 세워졌다. 이에 앞서 陳騫는 두려움 속에 도망하다 붙잡히자 음독자살했다.⁴³⁾

黎太祖는 처음부터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피폐된 베트남 사회를 재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명과 싸울 때부터 관료행정 체제를 확고히 하여 세력기반을 다지려고 하였다. 1426년 초 東都를 포위하고 명군을 압박하는 등 자신의 승리가 확실해졌을 때 東都 부근의 路와 鎭을 동·서·남·북의 4道로 나누고 문무 관리에게 맡긴 것이 그 좋은 예이다(『全書』 1984~1986, 530; 『綱目』 정편, 권 13, 32a-34a; Whitmore 1968, 9-10). 또한 六部員外郎 직을 설치하고 문관 30인을 선발하였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한림원과 4도의 屬吏로 515인을 보임토록 하였다(『全書』 1984~1986, 532; 藤原利一郎 1976, 2; Whitmore 1968, 10).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賢良之士’의 자천 타천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독립을 이룩한 1428년에는 4도에 淸化와 乂安을 중심으로 海西道를 더하여 전국을 5도로 나누고 문무의 일을 모두 문관인 行

42) 『全書』에는 東京이라 하였으나, 『綱目』에는 東都로 되어 있다. 東都를 東京이라 한 것은 『全書』와 『綱目』 모두 1430년이라 하였으므로 『綱目』의 기술이 정확한 듯하다(『全書』 1984~1986, 553, 563; 『綱目』 정편, 권 15, 7b, 26b).

43) 일설에는 黎利가 사람을 시켜 그를 살해했다고 한다(『全書』 1984~1986, 551; 『綱目』 정편, 권15, 1a-b).

遣에게 맡겼다(『全書』 1984~1986, 552; 『綱目』 정편, 권 15, 5a; Whitmore 1968, 18-19).

중앙의 문관기구로는 大行遣이 최고의 직이었으며, 그 아래로 尙書(吏部和 禮部)와 內密院이, 다음 단계로는 中書省·黃門省·門下省 및 五刑院·御史臺 등이 있었다(『憲章』 권 13, 관직지, 10b-11a; Whitmore 1968, 19-20). 초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여 각 부처의 업무를 분담하기보다 서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최고의사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淸化 출신의 무인 개국공신들이 독점한三公 大臣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실 많은 경우 문신들은 이들이 결정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기도 하였다.

太祖는 관료기구의 확대 이전 東都에 入城하자 곧 시급히 요구되는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친히 시험을 보아 32명을 뽑았다(『憲章』 권 26, 科目誌, 7b; 藤原利一郎 1976, 1). 그리고 기구의 확대로 인해 생긴 인재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1429년 고급관료와 하급관료의 자제를 위한 학교, 즉 學堂과 國學을 세우고 學堂의 학생들에게는 東宮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全書』 1984~1986, 558; 『綱目』 정편, 권 15, 17a-b). 이들은 물론 이후 관료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당장 부족한 인재를 충원할 수 없어 하급 문무관원이나 ‘隱逸之士’들에게 經史를 시험 보게 하여 합격하면 중용하였다(『全書』 1984~1986, 560; 『憲章』 권 26, 科目誌, 7b-8a; 『綱目』 정편, 권 15, 23a-b; 藤原利一郎 1976, 3).太祖는 그래도 미흡했던지 3품 이상 관원들은 각각 ‘賢才’ 한 사람씩을 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全書』 1984~1986, 561; 『綱目』 정편, 권 15, 24a-b; Whitmore 1968, 27; 佐世俊久 1985, 25-26). 1431년에는 宏詞科라 하여 詩賦를 시험 보아 합격자를 御前學生으로 삼았다(『憲章』 권 26, 科目誌, 8a; 『綱目』 정편, 권 15, 28a-b; 藤原利一郎 1976, 3-4). 결국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에

의해 黎朝 조정에서는 유학, 특히 신유학 존중의 기풍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黎太祖는 胡季犛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도교에 대하여는 제약을 가했다. 그렇다고 탄압을 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1429년 승려와 도사는 경전을 시험 보아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해주고 불합격한 경우에만 환속시켰기 때문이다(『全書』 1984~1986, 560과 562; 『綱目』 정편, 권 15, 24a). 이러한 제약은 전후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사실太祖는 일하지 않고 놀면서 圍碁나 도박을 일삼는 자들에게 체형을 가하도록 했는가 하면, 이를 알고도 용인해 주는 자 역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칙령을 내렸다(『全書』 1984~1986, 557; 『綱目』 정편, 권 15, 15b).

太祖가 통치한 지 6년째 되던 143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 때 10살이었던 태자가 제위에 오르니 이가 黎太宗(1434~1442)이다. 黎太宗의 치세에는 유교를 숭상하고 과거를 실시하는 등 유학의 진흥에 힘쓴 시기였다고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太祖는 태자가 어리기 때문에 죽음에 임해 淸化 출신의 개국공신인 黎察에게 정치를 보좌하도록 부탁하였다. 黎察은 이를 기회로 전권을 쥐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한편 친인척을 문무 요직에 앉혔다. 이른바 淸化 무인출신들의 과두정 치였던 것이다.

이들 淸化 출신은 공식적으로太祖의 유교이념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일면에선 불교계와도 밀착되어 있었다. 이들이 불교를 얼마나 신봉했는가는 1434년 여름 가뭄이 계속되자 吉州 法雲寺의 부처를 東京에 모셔다 놓고 기우제를 지냈다는가, 東京에 있는 報天寺를 起工한 일에 잘 나타나 있다(『全書』 1984~1986, 573과 575; 『綱目』 정편, 권 16, 6b-7a, 11b-12a).⁴⁴⁾ 그런가 하면 孟蘭會를 개최하고 설법이 끝난 후 경

44) 報天寺는 李朝 聖宗 때인 1056년에 처음 건조되었었다.

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은 사해 주었는가 하면, 승려들에게는 誦經錢을 내려 주었다(『全書』 1984~1986, 577; 『綱目』 정편, 권 16, 15a-b). 黎察만이 아니고 그가 실각한 후 뒤를 이어 권력을 장악한 黎銀 역시 불교신봉에서 그에 뒤지지 않았다. 黎銀은 집안에 관음불을 모셔 놓고 딸 惠妃가 太宗의 총애를 받도록 기원했다고 한다(『全書』 1984~1986, 602; 『綱目』 정편, 권 17, 14b-15b). 『전서』 의하면, 黎察과 黎銀만이 아니고 淸化集團의 개국공신들이 모두 유학을 멀리하여 그 영향이 하급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監生들에게까지 미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全書』 1984~1986, 593; 佐世俊久 1985, 31). 淸化集團의 이러한 유학기피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 지리적 위치 때문이었다. 淸化 지방은 톤킹 델타의 남쪽 변두리에 위치하여 유교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때문에 15세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일종의 문화적 주변부에 지나지 않았다. 黎利가 이 지방의 토호였다는 사실 외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434년 12월 前軍總管 黎受가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娶妻한 일로 탄핵을 받은 것은(『全書』 1984~1986, 581-582; 『綱目』 정편, 권 16, 20a-b; 佐世俊久 1985, 27). 淸化集團 인물들이 유교교양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달리 표현하면, 淸化集團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동안은 조정 내에서조차 유교적 이념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톤킹 델타 출신의 문신관료들은 문치주의를 추구하려고 노력했다. 太宗의 즉위(1434년)와 동시에 과거제에 관한 내용이 결정된 것은 이들이 노력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淸化 출신 무인인 黎察이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했다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의 결정에 의하면, 1438년에 향시를, 이듬해에 회시를 보며, 앞으로는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토록 되었다(『全書』 1984~1986, 577-578; 『憲章』 권 26, 科目誌, 8a-b; 『綱目』 정편, 권 16, 15b-16a; 藤原利一郎 1976,

45; 佐世俊久 1985, 32).⁴⁵⁾

한편, 이들 문신은 유교의 교화에도 힘을 기울여 1435년에는 공자묘에서 釋奠祭를 지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매년 釋奠祭가 행해졌다(『全書』 1984~1986, 584; 『綱目』 정편, 권 16, 24b). 이듬해에는 『新刊 四書大全』의 판각이 완성되어(『全書』 1984~1986, 591), 四書大全이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도 유학의 진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黎朝에서 과거시험이 처음 실시된 것은 1442년 초였다. 당시 회시응시자는 450명이며 그 중 進士 합격자는 모두 33명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들의 명예를 기리어 주기 위하여 進士題名碑를 세워주었다.⁴⁶⁾ 그러나 진사제명비가 실제로 세워진 것은 훨씬 후대인 黎聖宗(1460~1497) 洪德 15년(1484년)이었다(藤原利一郎 1976, 9). 여하튼 이 때 과거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太宗이 이미 성장하여 정사를 직접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淸化 무인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데 대한 불만에서 점차 통킹 델타의 문신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太宗의 문신 편향정책은 그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1442년 가을 至靈山으로 순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北寧 지방의 阮薦 집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사망했던 것이다. 원인은 명확치 않지만, 조정의 淸化 출신 개국공신들이 없어가고 있던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Whitmore 1968, 37-38).

太宗이 사망하자 14개월 된 그의 셋째 아들 仁宗(1443~1459)이 즉위했고 母后인 恭慈皇太后가 垂簾聽政을 행했다. 이 때 조정의 권력

45) 1438년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아마도 黎察의 권력남용과 黎銀의 觀音佛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전 해에 처형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권력의 약화를 두려워한 淸化集團이 과거를 통해 문신들이 권력의 중추부로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46) 『대월사기전서』의 찬자인 吳士連은 이 시험에서 합격하였다(『全書』 1984~1986, 606; 『綱目』 정편, 권 17, 21b-22a; 藤原利一郎 1976, 7).

은 다시 무인 재상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황태후는 이들의 권력을 좌시하지 않고 견제하여 전처럼 막강하지는 않았다. 仁宗의 치세에 3차례의 과거시험이 말해주듯이 유교화는 일보 전진했으나 뿌리 깊은 불교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448년 가뭄이 들자 황제를 비롯한 문무백관이 報恩寺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法雲寺의 불상을 報天寺에 모셔다 놓고 불승들이 비가 내리도록 誦經을 하게 하였다(『全書』 1984~1986, 615-617; 『綱目』 정편, 권 18, 5b). 經筵官·臺諫·翰林學士 등이 사찰에서의 기우제에 반대하였지만 황태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34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시험은 1448년과 1453년 및 1458년 3차례 치러져 어떤 연유에서인지 3년마다 시행되지는 못했다. 혹 淸化 무신들의 반대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1448년 시험에서는 고시관의 사사로운 감청개입이라는 폐단이 알려져 지탄의 소리가 높았다.

1442년의 시험에서 합격자는 33명에 응시자가 450명이었던 비해, 1448년에는 합격자는 27명으로⁴⁷⁾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응시자는 750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그 동안 유학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453년의 시험에서는 25명이, 1458년 시험에서는 4명이 합격되었다. 특히 1458년 시험에서 4명밖에 선발되지 않은 것은 1453년 시험 직후 仁宗이 親政을 시작하면서 1448년 시험의 폐단을 고려하여 반대파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그러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仁宗이 친정하기 전인 1449년 주목할 만한 법령이 반포되었다. 이후 베트남 가족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이 법령은 가족재산의 소유와 재산의 상속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재산은 남편의 재산, 처의 재산,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나누어진다. 남편은 처의 재

47) 『全書』에는 28명으로 되어 있으나, 진사제명비의 명단에는 27명만이 기록되어 있다(藤原利一郎 1976, 10).

산에 대해 하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처 또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그러했다(『全書』 1984~1986, 627; 『黎朝刑律』 67a-70a; 『綱目』 정편, 권 18, 23a-26a; Yu 1990, 89-104). 유교적 가족윤리는 가부장에게 가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가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렸다. 그런데 黎朝 사회에서는 부부가 재산상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는 것은 아직 베트남사회에 유교도덕의 영향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이 법은 黎朝가 律令國家體制로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仁宗은 친정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1459년 10월 이복형 宜民의 쿠데타로 모후와 함께 화를 입었다. 宜民은 太宗의 장자로 仁宗에 앞서 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생모 楊氏가 질투심이 많다는 이유로 폐위되어 서인이 된 때문에 그 역시 제위 계승권을 상실했었다. 불만에 가득 찼던 그는 마침내 파당을 지어 쿠데타를 일으켜 仁宗과 황태후를 시해하고 제위에 올랐다.

오늘날의 연구로는 楊씨가 폐위된 사건의 배후에는 淸化集團의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 楊씨가 海陽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宜民이 즉위하게 되면 델타 출신자들이 권력을 독점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淸化 출신의 훈구대신들이 교묘히 계락을 꾸며 太宗으로 하여금 모자를 제거케 했다는 것이다(Whitmore 1968, 84-86). 논의의 타당성 여부는 제쳐놓고 쿠데타가 성공한 후 淸化 출신들이 당장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델타 출신 문신들이 대거 등용된 것은 사실이다.

宜民은 베트남에선 처음으로 六部和 六科를 설치하여 문신들의 권력을 강화시켰다(『全書』 1984~1986, 640; 『憲章』 권 14, 관직지, 12a-b; 『綱目』 정편, 권 19, 1b).⁴⁸⁾ 六部는 중국에서와 같이 吏 · 戶 · 禮 · 兵 · 刑 · 工으로 중앙의 행정을 분담했지만, 六科는 중국과 달리

48) 宜民 이전에는 吏 · 戶 · 禮의 3部 밖에 없었다(藤原利一郎 1980, 322).

中書科・海科・東科・西科・南科・北科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감독하는 기능을 했다. 이들 직에는 말할 것도 없이 과거출신자들, 곧 델타 지방의 젊은 문인들이 임명되었다. 그는 府와 縣에도 개혁의 손을 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全書』 1984~1986, 640; 『憲章』 권 14, 관직지, 12a-b; 『綱目』 정편, 권 19, 1b). 宜民이 또 다른 어떤 개혁들을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그는 제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宜民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淸化 출신 개국공신들의 불만이 폭발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阮熾・丁列⁴⁹⁾ 등을 중심으로 1460년 6월 대의명분을 내세워 宜民과 그 추종자들을 몰아냈다. 그리고는 太宗의 넷째 아들인 灝를 황제로 추대하니 이가 黎聖宗(1460-1497)이다. 그는 이제까지의 정책에 일대 개혁을 시도해 黎朝를 베트남 역사상 보기 드문 안정과 번영의 길로 이끌었다. 때문에 후대의 군주는 모두 그의 치세를 황금기로 생각하여 그가 이룩한 정책을 모방하려 노력하였다.⁵⁰⁾

黎聖宗은 阮朝(1802-1945)의 제2대 군주인 明命帝(1820-1840)를 제외하면 베트남의 어느 군주보다도 유학을 존중했고, 유교적 윤리에 의해 베트남 사회를 변모시키고자 했다. 그가 얼마나 유가도덕에 충실했는가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것은 禮 때문이라고 한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이후 모든 관리의 승진은 유교적 예의 준수여부 따라 결정되게 하였다. 예를 들어 嫁娶에서 혼례를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것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全書』 1984~1986, 677). 다시 말하면, 그는 유가의 예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다.

49) 丁列은 쿠데타의 성공으로 國姓이 하사된 때문에 『全書』와 『綱目』에는 黎列로 기록되어 있다.

50) 일례로, 莫氏(1527~1592)에게 정권을 빼앗겼던 黎氏가 1592년 中興한 후 모든 과거시첩에서의 문체는 洪德年間(1470-1497)의 것을 답습하려 했다(『全書』 1984-1986, 1147).

聖宗이 왜 이처럼 유교도덕을 중시하였는가는 그가 어려서 배운 유교교육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太宗의 넷째 아들로 제위에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유교 경전들을 읽는데만 몰두하였다(Whitmore 1968, 98). 결국 그가 어려서 쌓은 유학의 소양이 제위에 오른 다음 그것의 실현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聖宗이 즉위한 이듬해 각처의 府와 路에 명하며 사원과 도관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금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연유에서였다(『全書』 1984~1986, 643; 『綱目』 정편, 권 19, 16b; Whitmore 1968, 110).

聖宗이 유교이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또 다른 이유는 황제권의 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유인선 1993, 479-480). 그는 太宗과 仁宗이 공신들 앞에 무력했음을 보았고, 그 자신 또한 그들의 힘에 의해 제위에 올랐음을 분명히 인식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황제권의 강화를 절실히 느꼈고, 이를 위한 이념적 배경을 유교의 忠 개념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결국 聖宗은 신유학의 충효사상을 통해 유교도덕의 실현과 황제권의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

聖宗의 유교도덕 강조는 우선 1462년 “保結鄉試例”로 나타났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향시의 응시자는 출신지의 지방관과 마을의 장, 즉 社長에 의해 有德者라는 보증이 요구되었다. 아무리 학문이 출중해도 不孝·不睦·不義·亂倫 등 유교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全書』 1984~1986, 645; 『憲章』 권 26, 科目誌, 8b-9a; 『綱目』 정편, 권 19, 19a-b; Whitmore 1968, 119; 藤原利一郎 1976, 13-14).⁵¹⁾ 이전에는 과거응시자에게 이러한 도덕성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聖宗이 유교윤리를 얼마나 중시했는가

51) 不孝·不睦·不義는 十惡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黎朝冊律』 4a를 보라.

를 잘 알 수 있다. 유교윤리란 明 초의 신유학을 말하는 것이다. 향시의 첫 시험과목이 四書였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聖宗 때 과거시험은 1463년에 처음 치러져 이후 매 3년마다 보는 것으로 정례화 되었다. 당시 시험에서는 4,400명이 응시하여 44명이라는 전례 없이 많은 인원이 뽑혔다(『全書』 1984~1986, 647). 이처럼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것은 응시자의 질적 향상도 있었겠지만, 이들 젊은이로 하여금 연로한 문무관원을 대체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같은 해 10월 그는 “文武官致仕年例”를 정하여 65세 이상인 자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全書』 1984~1986, 646; 『綱目』 정편, 권 19, 21b). 한편 1466년과 1469년 시험에서는 각각 27명과 20명만이 합격하여 1463년의 선발인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이 3년마다 정례화 된데 따른 준비부족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藤原利一郎 1976, 16). 여하튼 3차례에 걸쳐 선발된 91명이란 많은 進士는 중앙과 지방의 문관요직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1466년의 進士科 합격자인 陶舜舉와 阮仁浹은 처음 知縣에 임명되었다(『全書』 1984~1986, 672; 佐世俊久 1985, 39-40).

1466년 4월 중앙과 6월의 지방행정제도 개혁은 이러한 과거제도의 시행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 졌음에 틀림없다. 4월 宜民이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했던 六部가 활성화되고, 군사제도도 재편되어 五軍都督府로 되었다(『全書』 1984~1986, 656; 『憲章』 권 26, 관직지, 12b; 『綱目』 정편, 권 20, 2a-6a; 佐世俊久 1985, 39). 聖宗의 개혁의도는 분명치 않지만 당시까지 막강하던 대장군과 대신의 직을 명예직화하게 하고 두 기관을 모두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황제권을 강화시키지 않았나 한다. 사실 『全書』에는 이후 대신 직의 명칭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혹 보여도 그 역할은 지극히 미미하였다.⁵²⁾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문신 관료의 비대화였다. 聖宗은 이를 예견하고 일년 앞서 宜民이 설치한 六

科를 吏·戶·禮·兵·刑·工으로 개편하여 지방을 감시하던 데서 六部の 정책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바꾸었다(『全書』 1984~1986, 653; Whitmore 1968, 167).

지방행정은 黎 초 이래의 5道を 12道로 세분화하여 都司와 承司를 두고 중앙권력의 침투를 도모하였다. 道에 都承 二司 외에 憲司가 두어지는 것은 1471년 일이었다. 道 아래의 路와 鎮은 각각 府와 州로 재편하여 이전 무인관료가 담당했던 지방관을 전부 문인관료로 대체시켰다(『全書』 1984~1986, 656-657; 『憲章』 권 26, 관직지, 12b-13a; 『綱目』 정편, 권 20, 2a-6a과 7b-8b; 佐世俊久 1985, 39; 藤原利一郎 1976, 16참조).⁵³⁾

聖宗은 행정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자 다시 유학의 강화에 관심을 돌렸다. 1467년 그는 五經博士를 두고 한 사람이 한 분야만 전문케 하였다. 이유는 과거응시자들이 시험준비를 위해 四書와 詩經 및 書經에만 열심이었고, 禮記·周易·春秋를 배우는 자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全書』 1984~1986, 662; 『綱目』 정편, 권 20, 19a-b). 몇 달 후에는 五經官板을 판각해 국자감에 두게 한 것으로 보아(『全書』 1984~1986, 663; 『綱目』 정편, 권 20, 21b), 인쇄된 판각본들이 중앙과 지방의 학교들에도 분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聖宗은 이상과 같은 노력으로 1460년대 말까지의 유교이념을 확립하고 황제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누구도 자신의 이념과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1470년 연호를 ‘洪德’이라 바꾸어 유교 도덕의 구체적 실현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맨 처음 그가 내린 칙령은 자녀는 부모의 喪을, 처는 지아비의 喪을 3년 동안 遵行하며 모든 행동

52) 재상인 ‘平章軍國重事’가 『全書』에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光順 10년(1469)이다(『全書』 1984~1986, 675).

53) 『全書』의 13道는 『憲章』과 『綱目』의 기술처럼 12道가 정확하다. 13道로 된 것은 1471년의 일이다.

거지에서 근신하라는 것이었다(『全書』 1984~1986, 677-678; 『綱目』 정편, 권 21, 36a-37b). 이처럼 聖宗은 유교적 가부장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그 후 그는 18년 동안 유교윤리에 관한 많은 칙령들을 반포하였는데, 이들 칙령은 莫氏 정권(1527-1592) 초에 편찬된 『洪德善政書』에 수록되어 있다(Hong-Duc Thien Chinh Thu [洪德善政書] 1959).

과거시험은 예정대로 매 3년마다 치러졌고, 1472년의 26명을 제외하면 항상 40명 이상, 많을 때에는 60명(1478년과 1487년) 넘게도 선발되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것은 聖宗이 자기 유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에서 그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VI. 맺음말

우리는 전근대 베트남이라고 하면 유교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사에서 중요한 ‘시대’라는 개념을 고려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도 유교도덕이 지배적이지만, 그것은 조선시대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불교가 훨씬 더 우리 생활과 밀접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베트남에서 유교이념이 지배적으로 되는 것은 黎朝 때부터였다. 그 이전, 보다 정확히 말해서 陳朝가 멸망하는 1400년까지는 불교가 정치를 지배했다. 베트남에 유학이 전래되는 것은 중국지배가 시작하면서였다. 특히 후한 말 삼국시대 초기 交州에서 권력을 누렸던 士燮 때부터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때 유학은 지배층 몇 사람에게 알려졌을 뿐

만 아니라 불교도 전해져 양자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唐代에는 서울 洛陽에 가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자들도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시 중국의 영향에 의해 불교가 더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0세기 전반기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불교는 정권의 이념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더욱이 李朝는 불교세력의 지지에 의해 건국됨으로써 불교를 적극적으로 보호·장려하였다. 불승은 國師로서 정치의 최고 조언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황제는 승려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川本 邦衛 1976, 264). 1075년 이후 몇 차례 과거 시험을 치렀으나 합격자는 말단 관리로서 문서의 정리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陳朝는 李朝보다 관료체제를 강화했지만, 불교는 역시 정치적 지배 이념으로서 변함이 없었고 정치의 실권은 陳 왕실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陳朝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250년대부터 1280년대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이었다. 몽골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 하든가 또는 침입 이후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맡은 것은 문신관료였다. 이를 계기로 이들은 조정 내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古典으로서의 유학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유학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켜준 것은 1380년대 권력을 장악한 胡季犛였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송대 신유학이 아니라 원시유학이었다. 胡季犛는 처음 자신의 이미지를 周公으로 부각시키고, 나중에는 陳 왕실로부터 禪讓받기 위해 원시유학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가 비록 원시유학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베트남 사회가 불교로부터 유가 사상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407년 明이 베트남을 침공하여 이를 직접지배하에 두고 취한 동화정책은 베트남 儒學史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명은 베트남을 교화시키기 위해 많은 학교를 중앙과 지방에 세우고 신유학의 보급에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이 지배한 기간이 20년이나 되었지만 베트남인의 끊임

없는 저항으로 평화시키는 45년밖에 되지 못해 동화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Whitmore 1985, 129).

1428년 黎利가 東都에서 제위에 올라 국호를 大越이라 한 것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만이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까지의 불교이념이 지배하던 왕조들로부터 유교이념의 왕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왕조 초기부터 유교이념이 확고히 성립되지는 못했다. 黎太祖는 科目을 설치하고 학교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이를 착실히 실현할 수 없었다. 그의 치세는 짧은 데다 오랜 전란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黎太祖가 서거하자 太宗과 仁宗이 어린 나이로 제위에 올랐다.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淸化 출신의 무인을 대표하여 黎察이,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황태후가 섭정으로서 통치를 대신했다. 두 황제의 치세는 정치적으로 조정의 신하들이 반명투쟁에 공을 세운 淸化集團의 원로 무인들과 통킹 델타 출신으로 이들보다 나이가 젊은 문인들 사이의 대립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학이 지배이념으로 존속은 되었어도 일관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더욱이 淸化 출신 무인들은 유교보다 불교를 더 숭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유교이념의 확립은 黎聖宗에 이르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聖宗이 유교이념의 확립에 집착한 것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몰두하여 유교경전을 열심히 읽은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제위에 오르기 전 조정에서의 권력다툼을 보고만 있었던 두 황제의 무력함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유교의 충효사상을 강조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 어려서 배운 자신의 이념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13세기 중반 몽골의 침입으로 싹트기 시작한 유학의 이념은 胡季犛와 明 支配期를 거치면서 2세기 후인 1460년대 黎聖宗에 이르러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참고문헌

- 구범진. 1996. “베트남 陳朝(1225-1400) 沒落의 一要因에 대한 考察: ‘上皇制度’와 ‘皇室近親婚原則’의 崩壞를 중심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논문 20.
- 유인선. 1993. “베트남 黎朝社會와 儒敎理念.” 송갑호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 _____. 2001. “전근대 베트남인의 역사인식.” 『東洋史學研究』 73(1).
- _____.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禪苑集英』. 정천구 역. 2001.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 민족사.
- アジア・アフリカ研究所 편. 1977. 『ベトナム』(上). 東京: 水曜社.
- 藤原利一郎. 1976. “黎朝の科擧-聖宗の科擧確立まで.” 『史窓』 34.
- _____. 1980. “黎聖宗の官制改革について.” 山本達郎博士古稀記念. 『東南アジア・インドの社會と文化』(下). 東京: 山川出版社.
- 『明史』 1974. 北京: 中華書局.
- 桃木至朗. 1982. “陳朝期ヴェトナムの政治體制に關する基礎的研究.” 『東洋史研究』 41(1), n. 108.
- 山本達郎. 1950. 『安南史研究』. 東京: 山川出版社.
- _____. 1975. “陳朝と元との關係(1225-1400).”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三國志』. 1982. 北京: 中華書局.
- 陳荊和 編校. 1984-1986. 『校合本 大越史記全書』.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 陳荊和. 1987. 『校合本 大越史略』. 東京: 創価大學アジア研究所.
- 潘輝注. X-26. 『歷朝憲章類誌』. 東京: 東洋文庫.
- 『全唐文』. 1979. 臺灣: 大通書局.
- 佐世俊久. 1985. “ヴェトナム黎朝國家の確立過程に關する一考察.” 『史學研究』 167.
- _____. 1999. “ベトナム黎朝前期における儒敎の受容について.” 『廣島東洋史學報』 4.
- 黎澄. 1986. “南翁夢錄.” 陳慶浩 主編. 『越南漢文小說叢刊 筆記小說類』. 臺灣: 學生書局.
- 黎崱. 1984-1986. “越鑑通考總論.” 陳荊和 編校. 『校合本 大越史記全書』.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 竹田龍兒. 1966. “安南における科擧の起源及び成立.” 『史學』(慶応大學) 38(4).
- 『欽定越史通鑑綱目』. 1969. 臺灣: 影印本. 正編.
- 川本 邦衛. 1976. “ヴェトナムの佛敎.” 中村 元 等編. 『アジア佛敎史・中國編 I V』. 東京: 佼成出版社.

- 『新唐書』. 1975. 北京: 中華書局.
- 和田正彦. 1976. “ヴェトナムにおける宦官の受容とその稱號について.”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紀要』.
- 『黎朝刑律』. EFEO microfilm A 1995.
- Cuong Tu Nguyen. 1997. *Zen in Medieval Vietna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ong-Duc Thien Chinh Thu[洪德善政書]. 1959. Saigon: Nam-ha An-quan.
- Le Tac[黎則]. 2001. *An Nam Chi Luoc*[安南志略]. Hue: NXB Thuan Hoa.
- Ngan Nan Tche Yuan[安南志原], ed. 1932. L. Aurousseau. Hanoi: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Nguyen Khac Kham. 1989. “Dai Co Viet Revisited.” 『創大アジア研究』 10.
- Nguyen Q. Thang & Nguyen Ba The. 1992. *Tu Dien Nhan Vat Lich Su Viet Nam*[월남역사인물사전]. Hanoi: NXB Khoa Hoc Xa Hoi.
- Taylor, Keith W. 1983.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 1986. “Authority and Legitimacy in 11th Century Vietnam.” David Marr & A. C. Milner, eds. *Southeast Asia in 9th to 14th Centuri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ran The Phap. 1961. *Linh-Nam Chich-Quai*. Saigon: Nha Sach Khai-Tri.
- Tran Van Giap. 1932. “Le Bouddhisme en Annam.”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32.
- Whitmore, John. 1968. “The Development of Le Government in Fifteenth Century Vietnam.” Ph.D. Dis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 . 1985. *Vietnam, Ho Quy Ly, and the Ming(1371-1421)*. New Haven: Yale Southeast Asia Studies.
- . 1987. “From Classical Scholarship to Confucian Belief in Vietnam.” *The Vietnam Forum* 9.
- Wolters, O. W. 1979a. “Assertions of Cultural Well-being in Fourteenth-Century Vietnam(Part On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0(2). September.
- . 1979b. “Historians and Emperors in Vietnam and China.” Anthony Reid & David Marr, eds. *Perceptions of the Past in Southeast Asia*. Singapore: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 Yu, Insun. 1990. *Law and Societ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Foundation of Vietnam's Le Dynasty and Confucian Ideology : From Buddhism to Confucianism

YU Insun

Professor,

Department of Asian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uddhist Vietnam became Confucian-dominated since 1400, when the Buddhist Tran dynasty was succeeded by the Le dynasty. Through a series of Mongol invasion in between 1250s and 1280s, the civilian-led military, which was the main resistance force, started spreading its political power and Confucian influence over the country. In the 1380s, Ho Quy Ly's political ambition to be the successor to the throne led him to emphasize early Confucianism, further leading the Vietnamese society away from Buddhism.

The next turning point came in 1407 when the Ming Dynasty invaded Vietnam and started enforcing its 20-years of neo-Confucian assimilation policy to transform the Vietnamese culture, although the policy did no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country. In 1428, Le Loi took power in the Eastern Capital and renamed the country as Dai Viet. This event meant more than a simple change of dynasties. It meant the country had officially become Confucian.

When Le Thai-to was succeeded by young Thai-tong and Nhan-tong, conflicts between the older officials from the Thanh-hoa

group and the younger Tongking delta scholars hindered consistent promotion of Confucianism as the ruling ideology. It was Le Thanh-tong who later consolidated the Confucian culture in Vietnam. Following the Confucian teaching, he emphasized loyalty and strengthened his imperial power.

Key Words : Buddhism, Mongol Invasion, Ho Quy Ly, Ming Rule, Neo-Confucianism, Le Thanh-tong